싱글족에 친절해진 외식업계

metro
메트로 2014년 5월 8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가요계 톱가수 컴백 잇따라

스마트폰 피로감 현실화

트위터株 폭락으로 보는 SNS의 미래전망

중독 벗어나기 위해 다시 피처폰 3배 ↑

흡연 인구 줄어들 듯 소비패턴 변화 감지

#사례1= 재수생 이서준(20) 군은 최근 3G 피처폰을 장만했다. 중2 때부터 써왔던 스마트폰을 버리고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폴더폰을 산 것이다.

이 군이 '효도폰'으로 통하는 단말기를 마련한 이유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 군은 "재수생 신분으로 매달 1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내기도 벅찰 뿐더러 이대로 가다가는 삼수생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카톡과 같은 SNS만 자제해도 집중력이 크게 올라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사례2 대기업 과장 박상준(37) 씨는 얼마전 휴대전화를 추가로 장만했다. 기존 스마트폰은 업무용으로 쓰고 새 단말기는 개인용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서다.

박 씨는 "퇴근 후에도 회사에서 전화나 문자가 오고 e-메일 등으로 업무 지시가 떨어진다"며 "조직원이 아닌 '나'로 돌아가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털어놨다.

우려했던 스마트폰 피로감이 현실화 되고 있다. 여전히 4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소비 패턴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피로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처폰으로 바꾸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 점유율 중 피처폰 비중이 3배가량 늘어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지난해만 해도 SK텔레콤의 피처폰의 점유율은 2~3%대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 1월 8.7%까지 증가했고 2월에는 8.8%로 늘었다. 새 가입자 10명 가운데 1명이 스마트폰 대신 피처폰을 고른 셈이다.

한국산 필수 앱으로 통하는 '카카오톡'의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는 것도 스마트폰의 현주소를 알려준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카카오톡의 글로벌 가입자 수는 1억4000만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카톡이 1억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음을 고려하면 가입자 증가 속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글로벌 킬러 앱 가운데 하나인 트위터의 상품성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위터 주가는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전날 종가(38.75달러) 대비 17.81% 낮은 31.85 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트위터가 상장된 이래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것이다. 이날 주가 폭락으로 날아간 트위터 시가총액은 종가 기준 39억3000만 달러(4조480억원)에 육박한다.

트위터 주가가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12월 26일(74.73 달러)과 비교하면 무려 25조1900억원이 증발한 것이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비중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전에 비해 흡연 인구가 줄어든 것과 유사하다"며 "정신과 몸의 건강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SNS나 웹 검색이 되지 않는 신개념 스마트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오늘은 어버이날!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 농협우동 주최로 열린 '사랑의 孝 나눔' 행사에서 김해용 농협유통 대표이사(오른쪽)와 임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메트로 독자 여러분께 선물 드려요"

창간 12주년 기념 온라인 이벤트 … 29일까지

메트로신문이 창간 12주년을 맞이해 애독자 대상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메트로신문을 사랑하시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방법

1. 본인 SNS에 기사 올리고 캡처한 인증샷 보내기 (보낼 곳: metro@metroseoul.co.kr)
2.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기사를 읽고 기사에 SNS 댓글달기
3. 메트로신문 페이스북(www.facebook.com/metroseoulnews)에 '좋아요 하기'

◆응모기간

1차 4월 28일~5월7일 발표 5월 8일
2차 5월 8일~14일 발표 5월 15일
3차 5월 15일~21일 발표 5월 22일
4차 5월 22일~28일 발표 5월 29일

◆Tip 하나
모바일을 통한 댓글 참여 및 3가지 이벤트에 모두 참가하시면 당첨기회가 높아집니다.

◆Tip 둘
1차 이벤트에 당첨이 안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2차, 3차, 4차 계속 응모하시면 당첨기회가 역시 높아집니다.

◆Tip 셋
SNS를 통해 메트로신문 이벤트를 공유해주세요.

◆경품당첨 시 본인 확인 후 경품을 발송하오니, 불법적인 방법으로 응모하시면 당첨이 되더라도 추후 취소가 됩니다.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개의 아이디를 통해 중복당첨된 경우라도 1회만 인정되며 가족이 함께 참여해 중복당첨 한 경우에도 1회만 인정됩니다. (주민등록 소재지 근거)

◆경품 중 한국도자기 에코머그세트는 파손 우려로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

◆경품리스트

품목	수량(개)
[illegible] 디지털 카메라	10
한국도자기 에코머그세트	100
한국후지필름 디지털카메라	10
고려은단 비타플렉스 [illegible]	2
YBM시사 영어 학습기	1
[illegible]	5
[illegible] 가방	8 (브라운 4, 블랙 4)
[illegible]	2
[illegible]	1
[illegible] 10만원 상품권	2

metro

게양된 '한글 국회기' 7일 국회의사당 앞에 한글로 도안된 국회기가 게양돼 있다. 국회는 국회기 및 국회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한글도안 국회기를 게양했다. /연합뉴스

압류 부동산 장남이 회수

세모그룹 부도 후 차명 수법으로 빼돌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부도 직후 내놓은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 결국 아들에게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사 부도로 부채 상환에 써야 할 부동산을 지키려고 회사와 법적 채무 관계가 없는 아들과 지인을 이용, 차명 보유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유 전 회장이 실소유주로 확인되는 토지와 주택은 모두 4건으로 이들 모두 현재 장남 대균씨로 소유주가 바뀌었다. 유 전 회장이 세모그룹 부도 직전까지 살던 대구 남구 대명동의 2층짜리 빌라와 토지는 1998년 4월 경매로 대균씨에게 낙찰됐다. 세모그룹이 1997년 8월 말 최종 부도처리 된 직후다.

유 전 회장의 서울 서초구 부동산 3건도 소유자가 장남으로 넘어갔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363㎡(약 110평)의 땅은 세모그룹 부도 이듬날 법원에 가압류된 뒤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나자 (유)세모에 증여돼 경매에 붙여졌다. 1999년 6월 경매결과 낙찰자는 캐나다에 사는 이모씨였는데 그는 한달 뒤 국제영상 대표이사가 됐다. 국제영상은 현재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트라이곤코리아 소유다. 이 땅을 다시 2003년 9월 장남 대균씨가 사들였다.

염곡동의 다른 2층(건평 약 72평)짜리 주택도 세모그룹 부도 다음날 법원에 가압류됐다가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

유 전 회장 가족이 살던 곳으로 보이는 또 다른 2층(건평 약 84평) 주택은 부도 뒤 법원에 가압류되고서 1999년 9월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되자 석달 뒤 이순자씨에게 팔렸다. 이순자씨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문진미디어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 주택도 2002년 9월 대균씨에게 매매됐다.

결국 유 전 회장이 부도로 내놓은 개인 부동산을 모두 다시 장남 대균씨가 회수한 셈이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너도나도 안전 공약 '꼼수' 아니길

기자 수첩
조현정 <정치사회부 기자>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안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공개한 주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의 5대 핵심공약을 보면 대부분 안전 대책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안전 공약들의 이행 방법과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들은 공약 이행 기간은 '임기 동안'으로,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시비 조달' 또는 '국비 보조'라고만 밝혀 공약의 구체성이 결여됐다. 또 위기관리 대응체계 매뉴얼과 컨트롤타워 정비 등 비슷한 내용을 나열하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당선되기만 하면 된다는 판단에서 급조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안전 공약이 이처럼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면 유권자들의 판단은 흐려진다. 또 민심을 얻기 위한 표 계산용 공약으로 그칠 경우 주투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다.

물론 엿따라 불거진 안전불감증을 감안하면 공약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우리 사회 안전망을 재점검하는 것도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 감성코드 맞추기식으로 안전을 팔아 표심을 얻으려는 꼼수 정치인들이 없길 바랄 뿐이다.

국정원 2차장에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

신임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민(61) 전 인천지검장이 내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김 내정자는 공직을 떠난 이후 2009년 9월부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조인으로 형사와 공안, 외사 등 형사사법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수집 및 분석, 대북 대테러 방첩 등 대공수사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다. 김 내정자는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2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 4과장, 서울 서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순국선열에게 바치는 카네이션 7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사병묘역에서 충남대 학군단 소속 학생들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순국선열 묘소에 카네이션을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억 넘는 아들집 사는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자녀명의 6억↑주택거주자 '무료임차'도 소득 간주

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인 만65세 이상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의 30%이상 공제되는 반면 자녀명의 6억원이상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무료임차'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하는 노인들을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해준다.

부유한 가족이 있는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이 모두 주어지는 불합리함을 막기위한 장치도 추가됐다. 자녀명의의 6억원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사는 경우, 주택시가에 비례해(0.78%) 월 39~130만원의 '무료임차 소득'을 소득 산정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고급자동차(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 고가 회원권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소득환산액에 반영한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해양사고 방지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둬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감독하게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010 지방선거 재보선 비용 373억원 낭비

●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뽑힌 단체장 등이 당선 이후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이 373억여원에 달했다.

7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물러난 뒤 재선거 비용으로 173억원을 써 단일 재보선 비용 중 가장 많았다.

"채동욱 혼외자식 맞다"

검찰, 간접사실 토대로 결론 청와대 뒷조사는 무혐의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채군의 어머니 임모(56)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11일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정원 정보관(IO)은 불구속 기소됐다.

/[illegible]기자

수도권 3.8%·지방 8.4%

대학 입학정원 자율 감축

정부의 대학 특성화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2017년도까지 수도권 대학은 입학정원을 평균 3.8%, 지방대학은 8.4% 자율적으로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은 6.8%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 특성화사업을 접수한 결과 160개 대학에서 989개 사업단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학 특성화사업은 대학의 강점 분야 중심으로 특성화 기반을 조성해 체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2031억원, 수도권 대학 특성화에 546억원을 지원한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이 3.0%로 가장 낮고, 경기·인천권이 5.1%로 그다음이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8.0%), 대구·경북·강원(8.3%) 등 지방대학은 감축률이 높았다. 정원을 감축하지 않기로 한 대학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의 6개교와 지방의 4개교 등 10개교다.

/윤다혜기자

유람선 탈출 훈련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충주호에서 도내 34개 긴급구조기관(소방) 및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호 유람선 수난사고 대비 긴급구조훈련을 열고 있다. 승객들이 훈련에서 충주호로 뛰어들고 있다. /연합뉴스

바지선에 군 의료진 배치 민간 의사 투입도 검토중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민간잠수사의 사망사고 발생 하루 뒤인 7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잠수 작업이 이뤄지는 바지선에 군 의료진을 배치했다.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 바지선에 해군 군의관 1명과 의료부사관 1명, 응급구조사 2명을 배치하기로 했다"며 "민간 의사 추가 투입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침몰 세월호 바로 위에 설치된 바지선은 잠수사 수중 투입과 대기가 이뤄지는 곳인데도 그동안 응급구조사 1명 외에는 별도 의료인력이 없었다. 잠수사 사망사고 직후 인근 청해진함에 있던 잠수 전문 군의관이 현장 바지선에 투입됐고 이날 군의관 2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유선준기자 rsjun@

제주해경 경감 직위해제

골프 물의… 목포해경 수사 상황은 감감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와중에 골프를 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간부가 직위해제됐다. 제주해경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A 경감을 직위해제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에 대해 골프 음주 자제령을 내렸음에도 자신의 비번인 날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은 "동문 모임이 있어 어쩔 수 없어 골프를 치는 자리에 참석했다.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초기 부실대응으로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해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사고 직후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할 기회를 놓쳤다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 민간잠수업체 언딘을 먼저 투입하기 위해 해군의 잠수를 막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미 목포해경과 진도소방본부 119상황실 등 압수수색해 근무 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한 지 10일이 되도록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내놓지 않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지하철 점검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지하철2호선 선수역 신호관리소를 방문해 신호시계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 쇼핑·키즈상품 판매 늘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달라진 소비패턴 눈길

최근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달라진 소비행태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7일 신세계 센텀시티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지난 5일까지의 매출과 객수가 각각 전년보다 3% 이상 역신장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온라인 매출은 72%이상 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쇼핑을 포함한 외부활동을 자제함으로써 매장을 찾는 쇼핑객이 줄면서 자연스레 구매의 발길이 온라인 쇼핑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동 장르 매출 늘어

온라인몰의 세부적인 매출 신장률을 살펴보면 여성 커리어 중심의 여성 패션장르가 73%, 란제리 197%, 커피머신·키친웨어 등의 생활장르가 137%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성구매 수요가 온라인으로 상당수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셔츠·타이·정장 등의 남성장르는 16%, 골프 53%, 아웃도어 38% 등의 매출은 역신장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남성 레저 아웃도어 상품군에 대한 구매수요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춰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 애틋함이 더해져 5월 가정의 달 기념일을 맞아 관련 상품군에 대한 매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출산준비물을 포함한 신생아용품이 98%, 아동의류 43% 등 아동장르 매출이 온라인에서 전체 54%이상 늘었다.

오프라인 본매장에서도 주티노·빠띠쉘리 등의 아동 수입브랜드도 51%이상 매출이 증가했다.

아동완구·의류 등 대형 기획행사로 진행되는 '키즈페어'의 경우 전년비 200%이상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는 등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구매수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 놀이공간 찾는 발길 증가

아이들을 포함한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봄 세일을 시작으로 둔화된 소비와 매출 역신장이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 센텀시티의 아이스링크와 스파랜드, 그리고 주라지 공원 등지에서는 아동을 동반한 가족의 이용률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생 아들과 딸을 데리고 스파랜드를 찾은 해운대구 좌동의 박시연씨(여·37세)는 "요즘 들어 더욱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한다"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하루평균 객수가 1400명이였던 것이 이후 1600여명으로 늘어 가족중심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혁균기자 jhk@metroseoul.co.kr

세월호 사건 이후 소비자들의 구매행태가 가족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다. 사진은 휴일인 6일 신세계 센텀시티 놀이시설인 주라지공원을 찾은 가족단위 쇼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오거돈 "단일화 회동 하자" 김영춘 "혁신 없인 무의미"

무소속 오거돈(사진)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7일 오는 6·4 시장선거를 앞두고 범시민 후보 단일화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와의 즉각적인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오 후보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최대 화두인 시장선거에서의 범시민 후보단일화 논의를 더 이상 미룰 경우 지방정부 교체를 통해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는 범시민적 열망을 수용할 수 없기에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김영춘 후보 측에 "6·4 부산시장선거에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정치권력의 교체를 장담할 수 없다"며 "20년 이상 새누리당 일당독점 체제 하에서 침체되고 무기력증에 빠진 부산을 살리기 위해 범시민 후보단일화라는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제안에서 △5월15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 전 단일화 결단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일당독점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제반 세력의 결집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배제하고 범시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통 큰 결단과 통 큰 양보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김영춘 후보 '부산혁신 선거대책위원회'는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대위 측은 "제1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날 단일화 회동을 제안하는 것은 선거에 임하는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오거돈 후보의 비전과 정책, 그 어느 측면에서도 개혁을 찾을 수 없다"면서 "오직 자신의 승리만을 위해 단일화 운운하는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 부산을 바꾸고자하는 부산시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선대위 측은 "부산의 진정한 개혁과 혁신이 담보되지 않는 단일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부산시민은 지혜롭다. 오로지 이기기 위한 아무런 원칙과 기준도 없는 단일화로는 부산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30년 신항 입출항 선박 2만척 넘을 듯

부산항만공사 물류시스템 분석 결과 … 작년 7443척 집계

지난해 부산항 신항을 오간 컨테이너 선박이 7000척이 넘었고 2030년에는 2만 척이 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부산항만공사는 7일 부산항 항만물류정보시스템(BPA NET)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산항 신항을 오간 선박은 모두 7443 척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9년 입출항 선박 수(2062척)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5만t 이상인 중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44.2%인 3291척이었다.

10만~14만t 선박은 222척이었고 14만t 이상 선박도 311척나 됐다.

2009년에는 10만~14만t 선박이 26척에 그쳤고 14만t 이상 선박은 아예 없었다.

부산항만공사는 전체 입항실적을 활용, 장래 입항선박량을 예측한 결과 2030년 부산항 신항에는 2만447척이 오갈 것으로 내다봤다.

5만t 이상 선박은 52.9%인 1만825척 정도일 것으로 전망됐다.

10만t 이상 선박도 1724척으로 지난해 입출항 선박 수(533척)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부산항만공사의 한 관계자는 "부산항 신항 입출항 선박은 빠른 속도로 대형화하고 있어 수심과 항로 너비 같은 항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초대형 선박이 안전하고 여유있게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신항 입구 한가운데 있는 섬인 토도를 제거하고 항로 폭도 넓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서면시장 찾은 서병수 "재래시장 활성화 앞장" 제7기 부산시장에 도전한 새누리당 서병수후보가 7일 오전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 밑바닥 민심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서 후보는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 재래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골목상권이 살아야 서민경제와 부산경제가 살아난다"며 "재래시장의 최대 현안인 주차장건립과 현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혁균기자

대학생 하계캠프 참가자 모집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선전시가 주최하는 '2014 선전 국제우호도시 대학생 하계캠프'에 부산을 대표해 참가할 대학생을 모집한다.

신청자 모집은 오는 16일까지다. 부산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대학원생 포함)으로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2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중국 선전시에서 열리는 하계캠프에 참가한다.

'정보통신 올림픽' 함께해요

벡스코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 자원봉사자 모집

부산시는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부산 BEXCO에서 열리는 '2014 부산 ITU 전권회의'의 관련행사 지원 및 전권회의에 참여할 자원봉사단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75명으로,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원)생(유학생, 취업준비생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는 193개국의 나라에서 참여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한국어가 가능한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e-mail(sangr701@korea.kr)로 5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정보통신분야의 국제행사임을 감안해 IT관련 전공자 및 외국어 가능자를 우선 선발한다. 국제행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전권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각종 관련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선별 및 필요시 면접을 거쳐 5월 말경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자원봉사단으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발대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전권회의 기간 전에는 시 자체행사 지원 및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하고, 전권회의 기간에는 분야별 관련 업무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자원봉사단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시간 인정, 활동증서를 발급하는 등 대회 활동 참여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대회 종료 후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평가해 우수 활동 봉사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부산시장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 대학(원)생 및 유학생·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봉사단 외에도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각종 시민봉사단체나 기업의 지원도 별도 모집(무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ITU 전권회의 지원단(051-888-53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용섭기자 ysshin@metroseoul.co.kr

낙동강 겨울철새 기금마련 시·부산은행 협약식 가져

BS금융그룹 부산은행은 7일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와 '낙동강하구 겨울철새 보호를 위한 기금 마련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이달 말 출시 예정인 'BS에코적금'의 이자를 적립해 국제적 철새도래지인 을숙도철새공원(천연기념물 제179호)에 기부한다.

부산은행은 조성된 기금을 매년 12월 철새먹이 구입 등을 위해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와 함께 혹한기 겨울 철새 먹이주기 등 환경 및 철새 보호를 위한 대규모 봉사활동도 진행한다.

부산영어방송 제작지원 3편

부산영어방송(FM 90.5MHz, 재단본부장 이명식)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공모한 제작비 지원 사업에 3편이 프로그램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모닝 웨이브 인 부산', '온 더 로드 부산', '청년 PD가 간다! 특별한 통일-한류, 북한을 흔들다' 등이다.

'모닝 웨이브 인 부산'과 '온 더 로드 부산'은 25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받게 됐다.

유엔의 날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로 제작되는 '청년 PD가 간다'는 10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받는다.

'모닝 웨이브 인 부산'은 아침 출근길 대표 시사뉴스 프로그램으로 제작된다.

'온 더 로드 부산'은 21세기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떠오른 마이스(MICE)산업에서 부산이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세계 유명인사가 디자인한 와인 7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직원들이 할리우드 유명 배우 등이 직접 디자인한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가 배우, 노벨수상자, 스포츠 선수 등 세계 유명 인사 670여 명이 희망을 상징하는 그림을 직접 그린 이 와인은 판매된 수익금 일부를 국제 봉사단체에 기부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포켓용 재난 매뉴얼 제작

부산시는 태풍, 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켓용 재난 매뉴얼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지참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재난 매뉴얼은 풍수해 행동 매뉴얼, 재난경보상황실 운영 매뉴얼, 업무현황 매뉴얼이다.

풍수해 행동 매뉴얼은 태풍·호우·대설·지진 해일·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특보 발표에 따른 조치 사항, 시설물 응급복구대책, 상황관단회의, 비상근무계획,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을 담았다.

재난경보 상황실운영 매뉴얼에는 예·경보 운영 매뉴얼, 상황전파 체계도, 즉시보고 기준, 재난경보 상황실 운영규정, 시설현황 등 재난경보상황실 근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업무현황 매뉴얼은 부서 기본현황, 재해위험개선지구현황,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현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재해예방,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현황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포켓용 재난 매뉴얼을 담당 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갖고 다니며 위기상황 발생 시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편집뉴스

동래부 동헌 '독진대아문' 80년만에 제자리 찾는다

우리 민족정기 말살의 하나로 일제 강점기인 1930년께 아무런 연고도 없는 금강공원 숲속에 버려지다시피 했던 동래부 동헌 바깥대문인 '독진대아문(獨鎭大衙門)'이 80여년 만에 동래부 동헌 제자리 인근으로 찾아간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조길우)는 동래부동헌 일곽 정비 종합계획의 하나로 부속건물인 독경당·찬주헌 준공과 함께 독진대아문 상량식을 오는 9일 오후 4시 동래부 동헌 독경당 마당에서 거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독경당·찬주헌 준공 등 동래부 동헌 복원·정비 설명에 이어 독진대아문 상량문 낭독과 봉헌, 상량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5호인 '독진대아문'은 1636년 동래부사 정양필이 동헌 정당(正堂)인 충신당과 함께 지은 것으로 동래부 동헌의 바깥 대문이다.

1655년(효종 6) 동래부의 군사권이 경상좌병영 휘하 경주진영에서 동래독진(東萊獨鎭)으로 독립·승격되었음을 알리는 동래독진대아문(東萊獨鎭大衙門)이란 현판이 정면에 걸려 있다.

동래구는 원래 망미루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 시가지 정비계획에 따라 연고도 없는 지금의 금강공원 숲 속으로 방치하다시피 옮겨진 독진대아문과 금강공원 입구에 있던 망미루를 원래 자리 인근으로 이전 복원하기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구는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난 3월에 일제 강점기 때 헐거됐던 부사의 유식처 혹은 무관들의 대기소였던 '독경당'과 동래부사를 호위하는 비장의 처소인 '찬주헌'을 복원했다.

지난 2012년 9월에는 금강공원에 있던 '이섭교비', '내주축성비'를 제자리 원위치로 옮긴 바 있다.

한편 말을 관리하던 '고마청', 부사의 휴식공간인 '완대헌' 등 동래부 동헌에 딸린 부속건물들도 순차적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하균기자

market index <7일>

코스피	코스닥
1939.88 (▼18.58)	550.85 (▼8.51)

금리	환율
2.85 (▼0.01)	1022.50 (▼7.80)

한국 경제 세계화 순위, 말레이시아보다 아래

한국 경제의 세계화 순위가 말레이시아나 폴란드보다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012년 상품·서비스·금융·인력·데이터의 국제 교역량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 각국 경제에서 국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해 세계 131개국의 국제 교역 참여도 순위를 집계한 결과 한국이 20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같은 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 순위인 15위보다 한참 아래다. 특히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말레이시아(18위), 폴란드(19위)보다 낮다.

이같이 부진한 순위는 이민·여행·유학 등 인력 부문(58위), 데이터 부문(34위), 금융 부문(25위)에서 크게 뒤처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제 교역 참여도 순위 1~3위는 독일·홍콩·미국이 차지했다. 이어 싱가포르·영국·네덜란드·프랑스·캐나다·러시아·아일랜드가 10위권 안에 들었고 중국은 25위였다. /김민준기자

뉴스&뉴스

"감사하는 마음" 가정의 달 상품

7일 골드윈에 진출 그린조아 부산 연산점에서 직원들이 의류와 양말, 모자, 벨트 등 다양한 소품 등으로 구성된 가정의 달 패키지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공정하도급 신고하면 포상

● 불공정 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이 신고포상금 대상이 된다.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이들 행위를 신고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포상액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에 규정된 수준을 참고해 시행령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유주영기자

박용만 '밴 플리트상' 수상

● 박용만(사진) 두산그룹 회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만찬에서 '2014 밴 플리트상'을 수상했다.

매년 한·미 관계 증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나 기관에게 수여하는 밴 플리트상은 코리아소사이어티 창립멤버로 6·25 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에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용만 회장을 대신해 북미지역 건설기계 사업을 총괄하는 두산인프라코어 밥캣홀딩스 스캇 사장이 수상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권학
편집국장	조현호
부산지사장·직대	김명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650-2000
독자센터	02)721-9788

2002년 5월 31일 등록(정기간행물) 서울특별시 가00019

어버이날 '효도금융' 선물하세요

실버예금에서 은퇴설계까지…여행·의료 특화 상품도 눈길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인 어버이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해마다 돌아오는 어버이날이지만 매번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뜻깊은 선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전할까 아직까지 고민중이라면 카네이션 꽃과 함께 효도 금융 상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7일 금융권에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만한 알짜배기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대형행사나 이벤트는 없지만 금융사별로 조금만 눈여겨 보면 원금 손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실버예금부터 은퇴설계, 여행 보조등 다양한 효도 금융 상품이 마련돼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출시한 'KB골든라이프 예금'을 추천한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은퇴 후 국민연금 또는 연금저축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돼 50~60대 은퇴 고객의 노후를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시니어 고객 특화상품으로 '내 생애 아름다운 정기예적금'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9월 판매를 시작한 '내 생애 아름다운 정기예적금'은 출시 8영업일 만에 1만좌 1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해 지금까지 출시됐던 농협은행 수신상품 가운데 최단기 실적을 기록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장·노년층의 여유자금 활용을 위해 상속, 세무, 재테크 등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입 후 6개월 이후 가족의 애경사 발생 시 기본금리로 긴급자금 인출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모님의 여행 선물로 활용할 만한 금융상품도 있다.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IBK꿈보다청춘통장'은 해외여행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은퇴·노년층에 특화된 통장이다.

이 상품은 제휴 여행사의 여행상품 10% 할인을 비롯해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국제 긴급의료서비스, 외국통화 환전 수수료 50% 감면 등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이 내놓은 '우리평생파트너 상품패키지'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 입출식 통장인 '우리평생파트너통장'에 새롭게 출시하는 예적금 상품인 '우리평생파트너적금'과 '우리평생파트너예금'을 결합한 이 상품은 노후설계가 가능한 상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우리평생파트너'예·적금에 가입 후 회갑, 칠순, 팔순, 구순, 백순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시 기본금리를 적용하고 제휴업체인 ㈜투어비스에서 해외여행 상품 결제 시 5% 할인서비스도 한다.

이밖에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의료비 혜택을 받는 보험도 눈여겨 볼만하다.

삼성화재의 '행복한 노후 건강보험'과 한화생명의 고령자 전용 암보험 'The따뜻한실버암보험', LIG손해보험의 장기간병 전문보험 '무배당 LIG 110 LTC간병보험' 등이 그것. 간병과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해 부모님의 건강상태 등에 맞춰 효도용 금융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pjiw0213@metroseoul.co.kr

환율 1020원선 위협 7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쌓인 달러가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며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보다 7.8원 내린 1022.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5년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연합뉴스

대출상담·만기연장도 척척

스마트뱅킹 서비스 경쟁 눈에 띄네

주요 시중은행들이 스마트뱅킹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개편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도입해 스마트뱅킹으로 대출 상담, 신청, 만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존에는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과 관련 서류 제출을 거쳐야 가능했던 은행 대출이 스마트뱅킹으로 간편하게 이뤄지는 것. 또 카카오톡과 비슷한 스마트뱅킹와 실시간 채팅 앱으로 전담 직원이 대출이나 투자 상담을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상담원의 전화 확인만 거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며 "대출 연장에서 시작해 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올 상반기 중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스템을 개편한다. 하나은행 스마트뱅킹은 고객의 연령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고, 카드대금 납입일이나 예금 만기일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금융캘린더' 기능을 추가한다.

기업은행은 직원과의 화상 상담 서비스, 직원이 스마트뱅킹 전용 상품을 소개하는 '스마트 큐레이터'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외환은행은 최근 입·출금, 환전 서비스, 환율 정보, 가계부 등 6가지 앱을 통합했다. 대출, 예금, 카드 등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메뉴를 스스로 구성하는 기능도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에서 도입됐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영업점 창구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바뀐 금융 이용 채널이 스마트폰으로 다시 옮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기자 mini@

은행 금융사고 하반기 공개
10억이상은 이달부터 공시

올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은행의 모든 금융 사고가 공개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은행들이 금융사고 금액 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간 은행에서는 대형 금융사고를 낸 때에만 공시 의무가 있어 소액이거나 내부 직원의 잘못은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보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등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를 정기 공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은행 임직원 등의 부당 행위로 발생한 금융 사고의 손실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수시 공시하도록 이달 중에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 영업점에서 법규 및 내부 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 검사제도 등을 활용한 은행 불시 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박지원기자

신용등급 추락 '우울한 1020'

취업난에 등록금 대출 연체 탓… 금융접근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업난과 등록금 대출 연체 등의 요인으로 1020세대의 신용등급이 급속하게 악화됐다.

7일 한국은행이 신용정보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10대와 20대의 신용등급이 나빠졌다.

무작위로 넘겨받은 동일 차주 50만명의 시기별 신용등급을 연령대별로 평균을 구한 결과, 10대는 2008년 1분기 3.96등급에서 지난해 1분기 5.44등급까지 수직 상승했다.

KCB의 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신용자(1~4등급), 중신용자(5~6등급), 저신용자(7~10등급)로 분류되는 만큼 10대는 이 기간에 평균적으로 고신용자에서 중신용자로 추락한 셈이다.

20대는 2008년 1분기 5.14등급에서 지난해 2분기 5.62등급으로 평균 0.48등급 악화되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나쁜 등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젊은층의 신용등급이 추락한 것은 가계 소득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등록금 대출 연체와 취업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40대(4.54→4.52등급)의 신용등급은 시기별로 오르내리면서 큰 변화는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50대(4.47→4.36등급)는 0.11등급, 60대(4.50→4.32등급)는 0.18등급이 개선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미하나마 호전됐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사가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젊은 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

씨티은행 10년 만에 파업

노조 단계적 돌입… 금융권 파장 예상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7일부터 단계적인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2일 마지막 본점 조정에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7일부터 1단계의 쟁의행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3단계 파업에 들어간다. 1단계 쟁의행위는 점포와 부서별 릴레이 휴가, 내부 보고서 작성 거부, 판촉 활동 중단, 씨티그룹 본사와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 거부 등이다. 외국계 은행인 만큼 '영어사용 전면 거부'도 포함됐다. 씨티은행은 2006년 만든 언어사용 지침에 따라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문서에 한글과 영어를 병기한다. 2단계는 예·적금, 카드, 펀드, 보험 등 신규상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조치다. 전면 파업에 앞선 3단계로 부분 파업 또는 영업점별 순회 파업이 이어진다.

씨티은행 노조 측은 "지난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신고했다"면서 "7일부터 합법적인 쟁의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또 "1단계 단체행동에서는 고객들이 체감할 만한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체행동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씨티은행은 2004년 한미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0년여만의 파업을 맞게 된다. 씨티은행의 노사 갈등은 최근 사측이 190개 지점 가운데 30%에 달하는 56개를 없애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사측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재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점 통폐합으로 직원 650여 명이 감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조 측은 지난달 30일 조합원 3200여명 중 278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파업 찬반 투표에서 2551명(91.6%)이 찬성해 파업을 결의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은행들 다수가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다른 은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jkn@metroseoul.co.kr

대출 늘었어도 연체율은 줄었다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179조3000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2조1000억원(0.2%)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은 171조1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499조5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늘었고 가계대출은 479조3000억원으로 1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모기지론 유동화잔액이 4000억원 감소한 것을 포함하면 전달 대비 증가액수가 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85%로 전달 말(0.95%)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수년간 3월 원화대출 연체율(전달 대비)은 2011년 3월 0.07%포인트 내렸고, 2012년 3월 0.09%포인트 하락, 2013년 3월 0.12%포인트 하락 등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었다. /김현정기자

채소값 폭락에 소비까지 급감 본격적인 봄철에 접어들어 채소 값이 폭락했지만 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가락시장 기준 배추(10kg/1망) 평균 도매가는 3618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8501원에 비해 57.4% 하락했다. /연합뉴스

대우 vs 포스코 vs GS건설 '분양대전'

미사강변도시,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호재 잇달아

미사강변도시가 위례신도시에 이어 수도권 동남부지역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대우건설이 공급한 '미사강변 푸르지오'가 100% 계약 마감을 기록, 불확실했던 분양이 검증됨에 따라 건설사들이 잇달아 공급 물량까지 확대해 분양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미사강변도시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총 6개 단지, 6548가구다. 이 중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건설사 아파트는 3개 단지, 3163가구으로 절반 수준이다. 이달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스타트를 끊고 하반기 GS건설이 공급에 나선다.

◆저렴한 분양가 매력

경기도 하남시 망월·풍산동 일대 약 546만3000㎡ 규모로 조성되는 미사강변도시는 총 3만7000여 가구, 9만6000여 명을 수용할 신도시급의 사업지구다. 행정구역상 하남이지만 서울 강동구와 접해 있어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다.

실제 차량을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는 20~30분, 잠실은 10~20분대면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오는 6월 착공돼 2018년 개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구간 미사역이 지구를 관통해 대중교통을 통한 서울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수도권 최대 쇼핑단지 하남유니온스퀘어가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입주한 강동첨단업무지구도 차로 10분 거리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호재 덕분에 하남시 땅값은 2012년 3.41%, 2013년 3.78% 상승하며 2년째 세종시의 뒤를 잇고 있다.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인 만큼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데다 북·동쪽으로 한강이 흘러 일부 단지에서는 한강 조망권도 확보된다. 그러면서도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 안팎으로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아파트 전세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강 조망권 확보 눈길

올해 미사강변도시 첫 분양 단지는 대우건설이 A6블록에서 선보일 '미사강변2차 푸르지오'다. 전체 1066가구, 전용면적 93~114㎡로 구성됐으며, 오는 9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미사강변도시 최북단 한강에 인접해 일부 세대의 경우 영구적인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옆에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위치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이 A10블록에서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를 분양한다. 총 875가구 규모로 전용면적은 89~112㎡다. 단지 동측과 북측으로 137만㎡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초·중·고교 예정부지가 모두 도보권에 위치했다.

GS건설은 연초 LH와 A1과 A21블록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올 하반기 A21블록에서 '미사강변도시 자이(가칭)'를 먼저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총 1222가구 규모다.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단지 앞에 있다. 내년에는 북단에 위치한 A1블록에서 55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psol820@metroseoul.co.kr

오는 9일 대우건설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미사강변2차 푸르지오' 조감도

재택 알바 2시간에 100만원?

공정위, 허위광고 업체에 과징금 물려

인터넷에 댓글이나 홍보용 글을 써 올리는 일명 '재택 아르바이트'로 쉽게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거짓광고를 일삼은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위즈나인,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마케팅 등을 하는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시간 정도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위즈나인),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회원도 많다'(스마트러쉬) 등의 허위 광고를 내걸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루 2시간을 일하며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는 없었으며 회원 추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광고 혐의로 위즈나인에 과징금 800만원, 스마트러쉬에 과징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윤주애기자

올레TV보면 브라질 월드컵 보내드려요 KT의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올레 tv는 14일까지 '2014 브라질 월드컵 독점관 에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한신놀쿡 등 소니픽쳐스의 영화를 구매하거나 영화 월정액 서비스인 프라임 유색채에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월드컵 VVIP 관람 패키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올레tv 제공

전기차 판매 2016년 100만대 예상

닛산 리프 선두 주자·테슬라 모델S 급성장

전 세계의 전기차(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 포함) 누적 보급대수가 오는 2016년 초에 100만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독일 산업분석기관인 ZSW(Zentrums für Sonnenenergie-und Wasserstoff-Forschung Baden-Württemberg)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012년 초에 10만대, 2013년 초에 20만대를 돌파했으며 2014년 초에는 40만5000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연 평균 100%씩 증가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해보면 오는 2016년 초에는 100만대를 돌파하게 된다는 것이다.

ZSW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이 3대 전기차 시장이라고 밝히면서 그 뒤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이 따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업체별로는 닛산(리프), GM(쉐보레 볼트), 토요타(프리우스 PHEV)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 테슬라가 '모델S'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닛산 리프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닛산 리프는 올해 1~3월 미국시장에서 쉐보레 볼트를 3개월 연속 제치면서 1위를 차지했다. 리프의 3월 판매량은 2507대로 전년 동월 대비 12.1% 포인트가 증가했으며 볼트는 1478대로 전년 동월과 같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토요타 프리우스 PHEV는 2013년 3월에 786대가 팔렸으나 올해 3월에는 1452대가 팔리며 무려 84.7% 포인트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일반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르노삼성 SM3 Z.E와 한국GM 쉐보레 스파크 EV, 기아 쏘울 EV, BMW i3가 판매되고 있는데 제주도처럼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는 일부 지자체에서 주로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채명석기자 fermat@

곡면 글라스 디자인 냉장고 출시 LG전자는 전면에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강조한 곡면 글라스 디자인 냉장고 'LG 디오스 V9500'를 이번 주말부터 출시한다. /LG전자 제공

오너 vs 전문경영 연봉차 2배

최상위 수령자 20명 중 19명 오너…SK 보수 격차 가장 커

같은 재벌그룹 내 임원이라도 총수 일가의 전문경영인의 연봉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재벌그룹 기준에 최상위 수령자와 차상위 수령자 간 보수 차이가 큰 상위 20개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최상위 수령자 20명 중 19명은 총수일가라고 밝혔다. 전문경영인이 최고 보수액을 받아간 것은 삼성증권 김석 대표가 유일하다. 김 대표도 과거 총수일가의 횡사사건에 연루된 경력이 있다.

이번 조사결과, 재벌그룹 소속 73개 회사의 최상위자 보수는 24억1100만원으로 차상위자 보수 10억5900만원 보다 2.28배 더 많았다.

재벌 그룹 중 SK의 보수격차가 7.95배로 가장 컸고 SK C&C(7.82배), SK이노베이션(6.70배), 금호석유화학(5.99배), 대한항공(5.32배), 현대모비스(5.07배) 순이었다. 상위 1·2·3위는 지지한 SK계열사는 모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최 회장은 SK에서 87억원, SK C&C에서 80억원, SK이노베이션에서 112억원을 수령했다.

또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대표이사인 경우 이사직을 맡는 것보다 1.48배의 보수를 받았고, 같은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총수일가의 보수액이 전문경영인의 보수액보다 1.62배 많았다. 총수일가가 이사직을 맡는 경우에도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를 맡는 것보다 1.10배 더 많은 보수를 수령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GS건설의 경우, 최상위 보수 수령자에 이어 차상위 보수 수령자도 총수 일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았다. GS건설에서는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허명수 GS건설 사장이 보수 수령액이 가장 많은 임원 1~2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임원 간 보수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 차상위 보수수령자보다 2배 이상 많은 보수를 받는 임원들은 총수일가이거나 총수 자신 또는 일가에 충성한 임원"이라며 "특히 SK C&C의 최태원 회장, 만도의 정몽원 회장, 현대제철 정몽구 회장 등은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대표이사보다 몇배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총수가 임원의 보수액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벌그룹에 소속된 전체 회사의 직원수는 96만395명으로, 평균 보수액은 6700만원이었다. 반면 사내이사 평균 보수액은 6억1500백만원으로 직원의 평균보수보다 9.18배 많았다.

최상위 보수 수령자와 직원의 금액을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다. 재벌그룹 최상위 보수수령자의 평균 보수액은 16억5300만원으로 직원보다 26.99배 많았다. 총수일가 중 최상위 수령자의 경우 직원에 비해 30.16배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하균기자 lees1@metroseoul.co.kr

대졸초임이 3962만원

인천공항공사 5년 연속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년 연속 공기업 대졸 초임 1위에 꼽혔다.

7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외)의 2013년 경영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입사원(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초임 평균이 3136만원으로 2012년(3069만원)보다 2.2% 가량 올랐다.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3962만원이다. 울산항만공사(3783만원), 한국마사회(3726만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3518만원), 한국수력원자력(3349만원), 한국가스공사(3330만원), 한국동서발전(3311만원), 한국남동발전(3309만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294만원), 한국중부발전(3291만원) 등이 10위안에 들었다.

공기업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총 2631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채용한 기업은 637명을 뽑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차지했다. 한국가스공사(266명), 한국서부발전(211명), 한국남동발전(208명), 한국남부발전(157명), 한국도로공사(156명), 한국수자원공사(150명), 한국철도공사(148명), 한국중부발전(125명), 한국지역난방공사(98명) 등도 평균 이상의 신입사원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국현기자 lee@

"인터넷전화 장애시간 3배 보상"

삼성SDS 화재관련 공지

삼성SDS가 과천 정보통신기술(ICT)센터 화재와 관련, 장애가 발생한 와이즈070 인터넷전화 고객에게 장애시간의 3배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SDS는 지난달 20일 과천 ICT센터에 화재가 발생, 일부 서비스 등이 중단돼 삼성카드 결제, 삼성그룹 관계사 홈페이지, 일부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이 제한됐다.

이번 보상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장애를 겪은 고객에겐 시간당 요금(최근 3개월 평균)×장애시간(120시간)×3배의 금액을 보상한다. 장애시간의 경우 지난달 24일 통신서비스가 복구됨으로써 최대 5일간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 모든 고객이 일괄 120시간 피해를 본 것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1개월 통화서비스 요금도 차감하기로 했다.

보상은 5월 청구 요금에서 지급된다. 차감 이후에도 잔여 보상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달 요금에서 추가 차감될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SDS는 삼성와이즈070 홈페이지에서 고객별 보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콜센터(1577-0300)와 피해접수센터(1577-0382)에서 상담할 수 있다.

/서귀헌기자 [illegible]

'ITX-새마을' 12일 운행

코레일은 7일 지난 1974년부터 운행된 새마을호 열차를 대체할 순수 국내기술 제작 최신형 전동열차인 'ITX-새마을' 23개 편성을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투입 운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호는 30개 편성으로 하루 50회 운행되고 있다. 이 중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의 전철화 구간을 운행하는 30회를 7월 말까지 모두 ITX-새마을로 대체한다.

장항선, 중앙선 일부 등 비전철화 구간의 새마을호 열차는 9개 편성으로 하루 20회를 종전과 같이 운행한다.

ITX-새마을은 객차당 50~74석씩 6개 객차에 총 376석의 좌석으로 돼 있다. 2011년 발주해 현대로템에서 2년 6개월에 걸쳐 완성했다. 4만km의 시운전을 거쳐 영업에 투입된다.

/김우진기자 [illegible]

프로야구 중계보고 선물도 받고 LG유플러스가 유플러스 슈퍼라이브 U+SportsLIVE에서 생중계되는 2014 프로야구 경기 영상을 공유하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야구 이벤트 응모권 등 국내 프로야구 9개 구단 유니폼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밴드' 3000만 다운로드 돌파

게임 12월 오픈 성장세 가속

지인 기반 모바일 SNS '밴드'의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3000만 건을 넘어섰다.

밴드를 서비스하는 캠프모바일은 7일 2012년 8월 서비스 출시 이후 9개월만인 지난 5월 1000만 다운로드를 넘어 선 이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되며 2013년 10월 2000만 다운로드, 2014년 4월 말 기준으로 3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특히 밴드 전체 이용자 중 70%는 기존 밴드 이용자들로부터 초대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실제 사용한 이용자들의 추천으로 성장하고 있어 3000만 다운로드 돌파가 더욱 의미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캠프모바일 이람 대표는 "우리나라 대표 지인 기반 SNS로 자리잡은 '밴드'는 모임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며 해외에서도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아직 해외 이용자 비율은 전체 이용자 중 20%에 불과하지만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이용자를 확대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일정을 연기했던 '밴드 게임'의 오픈 시기도 오는 12일로 확정됐다.

/박성훈기자

아직도 실리콘밸리? 이젠 '실리콘 발리'

글로벌 이코노미

美 IT 기업들 인도네시아에 둥지 · 쾌적한 사무실환경에 싼 물가 등 장점

미국 정보기술(IT) 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의 IT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 발리로 몰려 들고 있다. 대도시의 빽빽한 고층 빌딩 숲 대신 싱그러운 녹색 숲에 자리한 '실리콘 발리'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다.

최근 영국 BBC 방송은 발리의 IT업체를 소개하며 실리콘 발리 열풍을 전했다. 1년 6개월 전 친구들과 발리에 '메일버드'라는 회사를 차린 안드레아 루비에르. 그는 고풍스런 누워 토론을 벌이는 친구들에게 말을 건네며 여유롭게 하루 일과를 정리한다.

메일버드는 e-메일을 주고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e-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수천명에 이르면서 메일버드는 테크크런치 등 유명 IT전문지에 소개, 실리콘 발리의 대표 IT기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루비에르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다

가 발리의 매력에 푹 빠져 삶의 터전을 옮겼다. 그는 "풍요로운 생활은 물론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가 전부 갖춰져 있다"며 실리콘 밸리를 앞어 마르게 칭찬했다. "물가가 저렴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회사 운영비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인터넷 속도도 선진국 빨칩니다."

1년 전 발리에서 사업을 시작한 피터 웰도 쾌적한 사무 환경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많은 사람들이 발리를 단순한 휴가지로 여기기 쉽지만 앞으로는 이런 생각이 변할 것이라고 했다. 재택 근무가 늘어 직장과 집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빡빡한 사무실 풍경도 바뀌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도심의 건물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며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일하고 쉬면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수년 전부터 화상 회의 및 재택 근무가 활성화됐고 각계 각층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은 1인 기업을 차렸다. 하지만 회사 전체를 휴양지로 옮겨 '올인원 오피스'를 구축한 메일버드 같은 업체들은 최근 2~3년 사이에 생기기 시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일버드 같은 업체들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벤처 기업과 투자자가 발리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지상 낙원' 실리콘 발리에도 단점은 있다. 업체들은 종종 집 언저리을 오고 가는 야생 원숭이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한다. 발리의 IT 산업 기반을 못 믿는 투자자를 설득하는 것도 숙제다. 루비에르는 "실리콘 밸리의 일꾼들은 천혜의 휴양지에서 에너지를 충전해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더욱 부지런히 일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대통령과 '찰칵' 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새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AP 연합뉴스

1인 평균 수입 8710억

헤지펀드 매니저 상위 25명

헤지펀드 매니저 상위 25명이 지난해 211억5000만 달러(약 21조 7740억원)의 순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월간 경제잡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스 알파' 매거진 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 상위 25명이 세금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거둬들인 평균 순수입이 한 명당 8710억원에 달한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인데다 2012년에 비해 무려 50%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미국내 상위 1% 부자를 점하고 있는 주요 헤지펀드 매니저들 사이에도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대부분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최근 5년간 헤지펀드 수익률이 대표지수의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상위 25명 가운데 가장 많은 순수입을 거둬들인 사람은 헤지펀드 아팔루사 매니지먼트의 데이비드 테퍼 회장으로 35억달러(약 3조6132억5000만원)를 벌어들였다. 전년도 순수입은 22억달러였다. 2위는 헤지펀드 SAC캐피털어드바이저의 창업자인 스티븐 코언으로 24억달러를 벌었다. 3위는 폴슨앤드코의 운영자 존 폴슨으로 23억달러에 이르렀다.

한편 지난 2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가 '헤지펀드의 왕'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한 억만장자 투자가 조지 소로스는 상위 25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미국왕기자

짝퉁이 원조 꺾었다

샤오미, 중국시장서 애플 제쳐 '화제'

'짝퉁 애플'이라는 비아냥을 받던 샤오미(사진)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원조인 애플을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홍콩 기반의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조사결과 삼성전자(18%) 레노버(12%)에 이어 샤오미가 1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분기 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했던 샤오미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점유율 10%를 돌파한 셈이다.

반면 전통의 강자인 애플은 쿨패드와 함께 점유율 10%로 공동 4위에 그치는 굴욕을 당했다. 샤오미의 이같은 약진은 '중국의 애플'로 불릴 정도로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는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신

제품인 '샤오미3'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샤오미3가 품질 면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3를 이겼다"고 선언할 정도다.

샤오미는 이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 본토 이외에 홍콩과 대만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에도 제품을 출시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짝퉁 이미지를 벗은 샤오미가 중국 본토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국명기자 kmlee@

공짜폰 사라지지만 혜택은 늘어난다

단말기유통법 10월 시행··· 보조금·요금할인 선택 가능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이동통신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보다 폭넓고 현명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지 아니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이통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이하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자급 단말기 등 저렴한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고 이통사 서비스 가입 시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보조금 공시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단말기 별로 얼마의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단말기별, 유통 대리점별, 이통사별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며 발품을 파는 등 공짜폰 찾기에 혈안이 돼 왔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법안 제4조에 따라 이통사와 유통점은 단말기별 보조금의 요건과 내용에 대해 공시하면서 공시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어느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최대 15% 이내의 금액 차이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100만원짜리 단말기에 2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공시했다면 A 대리점에서 이를 73만원에, B 대리점은 여기에 추가로 27만원의 15%인 4만500원의 보조금을 더 지급해 68만9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만일 이를 넘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조금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 시행 초기엔 보조금 축소 등 일부 문제가 다소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법안이 자리잡으면 출고가 인하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법안이 어느 정도 자리잡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예상된다"면서 "차츰 제조사 간 경쟁으로 출고가가 인하되고 결국은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 형성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다 현명한 단말기 서비스 구매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테크노마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은 모습. /연합뉴스

'스마트 글래스 신기하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 선글라스 유도회 회원들이 첨단 실내측위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글래스를 체험하고 있다. 스마트 글래스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작품 주변과 매장 소개 동영상, 3D 실내지도 등을 안경 증강부에 표시한다. /연합뉴스

학생 70% "태블릿으로 성적 올라"

풍부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장점

스마트기기로 학습한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의 성적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영어교육에 관심이 많고 윤선생 회원이 일부 포함된 학부모 커뮤니티 '윤스맘'에서 540명을 대상으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5%가 '현재 자녀가 스마트학습기로 학습한다'고 답했다.

스마트학습을 하고 있는 과목(복수 응답)으로는 '영어'가 7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어'(31.5%), '수학'(29.2%), '과학'(9.8%), '지능개발'(7.8%) 순이었다.

스마트학습자 전체의 1일 평균 학습 시간은 54.3분이었고 '1시간 이상 학습한다'는 답변도 전체의 28.7%에 달했다.

스마트학습은 실제 성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학습을 하는 학생의 70.8%는 '스마트학습 후 성적이 올랐다'고 답했다. '성적 변동이 없다'는 답변은 28.0%였고 '성적이 떨어졌다'는 응답은 1.2%였다.

전체 스마트학습자 중 학습지나 교재로 공부하다가 스마트학습기로 대체한 인원은 전체의 72.3%였으며 별도 서책형 교재로 공부한 경험 없이 바로 스마트학습을 시작한 경우는 27.7%였다.

기존 서책형 교재 학습 대비 스마트학습의 장점(복수 응답)으로는 '그림, 멀티미디어 등 콘텐츠가 풍부하다'(58.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진도 및 성적 확인 등 관리가 잘 된다'(43.6%), '아이가 흥미 있어 한다'(39.6%)가 뒤를 이었다. /박상훈기자

'정도전' '월탱'이 지닌 팩트의 힘

IT도 인문학이다
/박상훈기자

정통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KBS 사극 '정도전'의 인기가 기대 이상이다. 매회 20%에 근접하는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

'기황후'(패륜 품은 달)과 같은 사실(Fact)과 상상(Fiction)이 결합된 팩션(Faction) 드라마가 대세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은 다양하다. 정도전 역의 조재현, 이성계를 연기하는 유동근, 정몽주로 분한 임호 등 주연 배우들의 연기가 일품이다.

현실적인 요인도 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각종 세금은 자꾸만 오르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답답하고 한심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으면서도 이를 깨부수고 싶은 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TV를 켜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정도전이 "썩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종횡무진 활약하는 모습이 나온다.

정도전은 무장 이성계와 손잡고 약(惡)과 악습을 대변하는 권문세가 이인임을 쓰러뜨리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세력들을 제거한다.

역사가 스포일러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도전은 이방원에게 살해되기 전까지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예정이다.

온라인게임도 정도전과 상황이 비슷하다. 역사 속 팩트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임들이 큰 관심을 얻고 있다.

벨라루스 게임기업 워게이밍이 서비스 중인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탱크'가 좋은 예다. 이 게임은 2차 세계 대전을 무대로 당시 전장을 누볐던 다양한 탱크가 등장하는 것은 물론 실제 전투지역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게임이 최근 도입한 '역사 전투' 모드는 리얼리티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동부전선의 전세를 소련 쪽으로 완전히 가져다 준 전투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전이 벌어진 '쿠르스크 전투'와 독일군 최후의 공세가 펼쳐진 '발지 전투' 등 역사 속의 전차전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실제 전투가 벌어진 전장을 배경으로 타이거 I, T-34 등 실전에 참여한 탱크들로만 전투가 벌어진다. 각 전차는 2차 세계대전 당시와 동일한 부품은 장착하고 전장에 투입된다.

넥슨의 인기 MMORPG '바람의 나라'는 고구려 3대왕 대무신왕(무휼)의 정벌담을 비롯해 자비 연, 아들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중첩되는 전쟁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게임의 누적 회원수는 1800만명이며 서비스 18년째인 올해에도 동시접속자수 1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픽션을 능가하는 팩트가 발생하는 탓일까. 픽션이 너무 심각하거나 너무 흔해 질린 것일까.

팩트의 힘은 강하다.

어린이 자전거도 진화한다

성장발달 따라 변형 가능—부모와 아이 모두 만족

따뜻해진 날씨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선물로 자전거가 인기다. 실제로 4월 중순부터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아동용 자전거와 승용완구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전거 전문기업 일톤스포츠(대표 박찬우)는 4월 하반기 2주간의 아동용 자전거 판매가 같은달 상반기보다 3배 넘게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회사의 유아용 세발자전거 트라이크(사진) 제품은 아이의 발육 상태에 따라 삼단변신이 가능해 부모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자전거는 패션브랜드 베네통과 협업을 통해 만든 제품으로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아이의 성장발달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변형시켜 10개월 이상의 체중 20kg 이하 아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유모차 겸용 자전거 단계로 시작해 아이가 걸을 수 있는 15개월 정도의 나이가 되면 보조장치를 접거나 제거해 보호자 지도 자전거 단계로 변형할 수 있다. 아이가 혼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24개월 이상이 되면 모든 장치를 제거하고 독립형 세발자전거로 변형이 가능하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추천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바퀴 크기는 14~20인치 정도가 적당하며 안장의 높이는 아이가 쉽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 회사에서 선보인 베네통키즈는 바나나형 안장을 장착해 안전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바나나형 안장은 페달을 헛 밟았을 때도 아이가 앞뒤로 밀리지 않게 잡아줘 안전성을 고려했다.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 프레임은 무게를 줄였고 우레탄 소재의 보조바퀴는 소음이 적고 탈부착이 용이해 집에서도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천리자전거(대표 김석환)는 국내 최초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한 다기능 세발 자전거 보디를 최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등받이 각도조절·풋브레이크 시스템 등과 같은 고급 유모차에 접목된 기능을 자전거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자전거 주행 시 아이의 움직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페달 및 핸들 클러치 기능을 비롯해 안전성과 편의를 위한 12가지 기능을 탑재해 유모차형 자전거라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자전거 역시 아이의 성장에 따른 4단계 맞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모차에서부터 독립형 세발자전거 단계까지 쉽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

김민철 일톤스포츠홍보마케팅팀 팀장은 "아동용 자전거를 구입할 때는 보조바퀴가 견고하게 장착돼 있는지, 구입 후 A/S가 가능한 브랜드인지 잘 따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며 "헬멧이나 각종 보호장구를 어릴 때부터 착용하도록 해 안전한 자전거타기 습관을 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esc0604@

가정의 달, 엄마 건강 챙겨주세요~

갱년기·골다공증 예방 '나또', '골드파인' 인기

가정의 달 5월이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늘 뒷전이었던 엄마를 위해 여성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

먼저 여성에게 좋은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콩을 48시간 발효시킨 '나또'가 있다. 콩의 영양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발효를 통해 몸에 유익한 효소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나또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 갱년기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

또 나또에는 지방질 대사를 높이는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으며 나또의 발효 과정에서 생긴 '나또키나제'는 강력한 혈전용해 효소로 심근경색·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수입(일본산) 나또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00% 국산콩으로 만든 풀무원 나또가 등장해 관심이 높다. 이 제품은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발효시키는 기술(방은숙성)을 사용해 냄새가 적고 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골다공증을 겪는 여성이나 노년층에게는 골드파인애플이 인기다. 골드파인은 피부·뼈·연골을 이루는 필수 성분인 '망간'이 풍부하며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일반 파인애플보다 비타민C 함유량이 4배 이상 높은 델몬트 골드파인은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어 감기 예방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황재용기자 hsoul38@

선 케어 브랜드 바나나보트 국내 론칭

온 가족이 사용하기 좋아

미국 선 케어 전문 브랜드 바나나보트(http://www.bananaboat.kr/)가 한국에 공식 론칭했다.

바나나보트의 선제품은 무향 무취, 묽은 질감의 제형으로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아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 좋다. 또 아보 트리플렉스(Avo-Triplex) 3중 보호효과로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일반 선블럭 제품에 비해 장시간 피부 보호 기능을 유지하고 UVA와 UVB를 모두 차단시키며 빠르게 마르고 끈적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출시되는 제품은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제너럴 프로텍션 라인' ▲땀에 강하고 쿨링 효과까지 가미된 '스포츠 라인' ▲피부에 자극이 없는 '키즈 라인' ▲햇볕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애프터 선 라인' 등이다.

/정혜인기자

핸드드립 커피 무료 세미나

메트로신문·어라운지 공동… 24일 진행

메트로신문이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 최대 커피 유통 전문 브랜드 '어라운지(ArounZ)'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 세미나'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 세미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어라운지 선유도점에서 열립니다.

2012·2013 WBC 국가대표 바리스타 선발전 3위에 입상한 어라운지 소속의 박상욱 바리스타가 핸드드립 커피의 기초 이론부터 실습까지 같이 있게 교육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향긋한 드립 커피를 즐기는 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메일(coffeearounz@naver.com)에 간단한 인적 사항(이름·연락처)과 신청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2명을 선정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5월 15일 개별 통보됩니다. 기타 문의 전화 070-7115-0326

metro AROUNZ

눈 뜨면 보이는 부모님 숨은 질환

삶의 질 낮추는 척추관절 꼼꼼히 체크해야

척추관절 질환은 노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나 자식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 같은 생각에 이를 숨기는 노인들이 종종 있다. 이에 부모들의 일상생활에서 척추관절 질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평소 건강관리 신경을

먼저 오십견으로 잘 알려진 유착성관절낭염이 있다. 이 질환은 어떤 방향으로든 어깨를 움직이기 힘들고 누워 있을 때에도 어깨 통증과 불편함이 느껴지는 질환이다. 따라서 부모들이 옷을 입고 벗거나 세수하기, 머리 빗기 등을 힘들어한다면 오십견을 의심해야 한다. 또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관절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노인성 질환 중 하나다. 관절이 붓고 아프며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증상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평소 걷거나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구조를 변형시켜 O자 다리를 유발하기도 한다.

아울러 50대 이후 나타나는 척추관협착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 질환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눌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앉아 있을 때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서 있거나 걸을 때 심한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발생한다. 즉 오래 서 있거나 걷지 못하고 조금 걷다가 앉거나 의자에 앉아야 하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동근 수원 튼튼병원 원장은 "노화가 원인인 질환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바나나 껍질 그냥 버리세요?"

가죽 광택제·천연 방향제·비료 등 활용도 높아

바나나는 남녀노소 사랑받고 있는 국민 과일이다. 대형마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수입과일 판매순위에서 왕좌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바나나 껍질은 홀대 받아 왔다. 이런 바나나 껍질도 잘만 활용하면 생활에 유용한 아이템으로 두루 쓰인다.

◆가죽 깨끗이 닦을 때

어두운 계통의 가죽이 더러워졌다면 바나나 껍질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껍질로 가죽의 더러워진 부분에 대고 문지르기만 하면 된다. 바나나 껍질의 바깥쪽 노란색 부분으로 문질러야 한다. 그런 다음 마른 천으로 닦아주면 광이 되살아난다.

◆악취가 심한 곳에도

바나나 껍질은 하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 변기 등 심한 악취의 근원인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장소에 약 3일 간 놓아두면 천연 방향제 역할을 한다. 바나나 껍질을 냉동실에 얼렸다가 소주와 섞어 믹서기에 간다. 이를 컵에 담아 입구를 랩으로 씌운 뒤 악취가 심한 곳에 놓아두면 된다.

◆천연마사지 팩으로도 사용

바나나 껍질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껍질에는 '천연방지제'라는 칼륨이 함유돼 있다. 바나나 껍질을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씻은 뒤 껍질 안쪽 하얀색 부분을 얼굴이나 전신에 10분가량 부드럽게 문지른다. 그런 다음 미온수로 헹궈주면 된다. 이 마사지는 여드름과 건성 피부 개선에 효과적이다.

◆식물 비료에도 효과 만점

바나나 껍질을 햇볕에 완전 건조시킨다. 이를 작은 크기로 자른 후 한참 자라나고 있는 식물의 화분에 올려 두면 훌륭한 천연비료가 된다.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넣어 건조시켜도 된다.

/김학철기자

싱글족에 친절해진 외식업체

매장 인테리어 바꾸고 간단 메뉴 등 선봬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혼자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매장에서 혼자 밥 먹는 대학생 이른바 '혼밥족'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는 등 아직은 혼자 밥 먹는 것이 어색하고 낯선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가운데 싱글족을 겨냥해 혼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매장을 꾸미거나 메뉴의 선택폭을 넓히는 외식업체들이 늘고 있다.

먼저 카페 '리맨즈 콜렉션 카판'은 혼자서 밥 먹기를 처음 도전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가벼운 식사부터 브런치·디저트 등 먹을거리와 커피·차 등을 판매하기 때문에 홀로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최근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여럿이 앉을 수 있는 넓은 테이블부터 1~2인용의 작은 테이블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다 넓은 테라스가 있어 눈치보지 않고 혼자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메뉴도 혼자서 먹기에 부담 없는 것들이 많다. 홍대점의 경우 혼자 온 고객들을 위해 지하 1층에 북카페 형식의 좌석도 마련했다. 인근에 대학교가 있어 혼자 식사를 하며 공부하는 고객이 많아 이들의 편의를 위해 따로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혼자서 먹더라도 럭셔리한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사진)가 있다.

여러명이 함께 가야만할 것으로 여겨지는 외식 공간인 패밀리 레스토랑. 하지만 최근에는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자랑스레 인증샷을 공유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 테이블마다 칸막이를 설치하는 매장이 많고 조명이 어두운 편이라 많은 고객들이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 이 곳의 'ㄱ'자 모양 웨스턴 스타일 바는 혼자 테이블에 앉을 용기가 없는 이들에게 좋다. 1인 고객은 아웃백의 바에서 다양한 칵테일, 맥주를 즐기거나 식사를 하며 TV를 관람하기도 한다.

갑자기 술이 먹고 싶어지는 날 혼자서 술 마시기가 최상급 코스라고 생각해 편의점으로 아쉬운 발길을 돌리려는 고객들을 위해 최근 1인 주점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일본식 선술집 '꼬지사께'는 혼자 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체손님을 위한 테이블과 함께 닷지(바 테이블)를 설치해 1인 고객들도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꼬치구이와 같이 간단한 안주와 함께 맥주는 물론 도쿠리·잔술 등 혼자 즐기기 힘들었던 사케를 나눠 판매해 편의점이나 집에서 술을 마시던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리=[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타요버스 타요 현대백화점 천호점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오는 11일까지 '타요와 함께하는 대중교통 캠페인'을 벌인다. 천호점 옥외주차장에 타요 버스를 전시하고, 방문 고객 누구나 탑승 및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9일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주민들의 친구인 '가니' 버스를 운행한다.

/현대백화점 제공

스무디킹, 가정의 달 'Love Shake' 캠페인

오리지널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스무디로 사랑을 전하는 '5월엔 스무디로 Love Shake'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가족·친구·연인에게 건강을 담은 스무디로 'Thank You·LOVE·SMILE(감사·사랑·웃음)'을 선물하자는 취지 아래 마련됐다. 5월 한달 간 스무디킹의 스테디셀러 TOP3 제품과 할리우드 스타들의 잇 아이템으로 떠오른 블렌더보틀 세트를 특별한 가격으로 선보인다.

비타민 가득한 건강스무디 '골드 키위선샤인', 칼로리 걱정없는 날씬 스무디 '슬림앤 슬림 스트로베리' 내 몸에 좋은 자판스무디 '엔젤푸드' 중 레귤러 사이즈 하면 약 3만원 상당의 블렌더보틀을 스무디와 함께 레귤러(R) 1만7000원, 라지(L) 1만9000원으로 만날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스무디킹 전 매장에서 시행하며 캠페인 관련 내용은 스무디킹 홈페이지(http://www.smoothieking.co.kr/)와 스무디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학철기자

야쿠르트, 건강기능식 특별 할인

한국야쿠르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1일까지 전연령군 비타민 브이푸드, 발효홍삼K 등 건강기능식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주요 할인 판매 제품으로는 '브이푸드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사진)을 10%로 할인된 가격인 7만9200원에, 유산균과 효소 2종 발효를 통해 흡수력을 높인 '현진생 발효홍삼K'를 10% 할인된 가격인 7만5600원에 각각 판매할 수 있다. 종합비타민 선물세트인 '브이푸드 3종세트'의 경우 20% 할인된 9만2800원에 판매한다.

지난 달 출시한 남성갱년기종 삼가선 제품인 '미스터Q'(사진)도 출시 된 달만에 30억개 판매 돌파를 기념해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야쿠르트 측은 "이번 행사는 기존에 할인가격으로 접할 수 없었던 제품들로 구성됐다"며 "세대별 특별 선물세트를 엄선해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llegible]기자

'냉동과일'의 편견을 버려라

성분 파괴 少 요리 활용 多

흔히들 냉동과일이라고 하면 신선도와 영양이 나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냉동과일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1년 내내 두고 먹을 수 있고 다양한 디저트나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 조지아대학교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냉동 브로콜리 딸기 완두콩은 비타민 C 함량이 냉장 제품보다 더 높았다. 일부 식품은 냉동 농산물이 5일간 냉장 보관한 것보다 영양학적으로 더 우수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형마트에선 냉동과일 열풍이 불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일부 고객들만이 찾는 낯선 수입 과일로 여겨지던 냉동 블루베리의 경우 2011년 한 해 동안 롯데슈퍼에서 판매액은 3억원에 불과해 과일 전체 판매량 순위에 진입하기도 힘든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2년 12억원, 2013년 19억원으로 크게 신장하면서 올해는 4월 말 현재 10억원을 돌파했다. 올 해 예상 매출은 50억으로 수입과일 기준 4~5위 수준에 이르는 높은 순위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냉동 블루베리는 구매 후 냉동실에서 장기간 보관하면서 주스로 갈아 먹기도 하고 집에서 직접 만든 요거트와 함께 먹으려는 수요가 매출 급증의 큰 요인이라고 업계 측은 분석했다.

/[illegible]기자

노출의 계절, 피부에 좋은 제모 방법은?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앞두고 여성들이 제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면도기로 제모를 하지만 면도기는 주의할 점도 많다. 면도기를 사용하면 털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으나 다시 자라나는 털이 거칠고 뻣뻣해져 다음 제모 시 더욱 세게, 강하게 제모하게 돼 피부 손상이 심해질 수 있다. 또 면도기 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세균 감염으로 인해 자극성 피부염이 일어날 수 있으며 면도날로 인한 상처로 인해 색소 침착도 생길 수 있다.

제모 브랜드 비트(Veet) 김은지 브랜드 매니저는 "제모 시에는 털을 말끔히 제거해주며 제모 후에도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꿔줄 수 있는 전문 제품을 사용하고 각 신체 부위 특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위별 특징에 맞는 제품 선택해야

보습 성분 함유 제품 사용 하도록

◆샤워 중 제모와 각질 제거 동시에

바쁜 직장 여성들은 아침에 샤워와 동시에 제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사용하기 간편한 면도기를 사용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샤워할 때는 모공이 열려 있으므로 피부에 강한 자극과 손상을 야기하는 면도기보다는 자극이 덜한 크림 타입의 제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제모 크림은 팔꿈치나 무릎 등의 각질 제거와 함께 충분한 보습 효과까지 줄 수 있다.

비트의 '인샤워 제모 크림 민감성 피부용'은 크림 타입의 제모 제품으로 제모 시 최소 3분에서 최대 (6분) 사이로 짧은 시간 내에 깔끔하게 제모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알로에 베라와 비타민 E를 함유해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되며 제품과 함께 들어 있는 인샤워 스폰지는 한층 더 깔끔한 제모와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다.

◆피부와 모근까지 신경 써야

겨드랑이의 경우 굴곡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면도기를 사용해 제모하면 자극을 여러 번, 강하게 주기 때문에 피부에 주름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피부가 거뭇해질 수도 있다. 이때는 제모 효과가 면도기 대비 2배 이상 길어 매일 제모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적은 제모 크림 제품 중 민감한 피부용을 사용하면 좋다.

다리 제모 시 겨울 동안 관리를 소홀히 했을 확률이 높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리에는 집에서도 손쉽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넓은 부위에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털의 모근까지 뽑아내는 제모 왁스 타입이 제격이다. 제모 왁스는 털이 바로 다시 자라나지 않아 한 번 사용 시 제모 효과가 최장 4주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매일 제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종아리는 특히 신체 중에서 가장 건조한 부위 중 한 곳이므로 제모 시 보습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가 진정될 수 있도록 보습력이 뛰어난 바디 로션을 추가로 발라주면 좋다"며 "제모 후에는 다리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는 스키니 진이나 청바지 대신 피부에 자극이 적은 치마나 면바지를 입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혜인기자

어버이날 선물용 패션 굿 아이템은

세련된 엄마·실용적인 아빠에 맞추세요

어버이날을 맞이 패션에 민감한 세련된 엄마와 실용성을 꼼꼼히 따지는 아빠를 위한 맞춤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 자녀들은 고민이 앞서기 마련이다.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들에게 진주 주얼리는 선호도가 높은 패션 아이템 중 하나다. 패션 주얼리 브랜드 스와로브스키는 크리스털과 진주의 조화가 돋보이는 누드(Nude) 네크리스와 퍼페추얼(Perpetual) 이어링을 어버이날 선물로 제안했다.

볼륨감있는 실루엣에 화이트 펄의 반짝임이 클래식하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를 살리고 크리스털 장식이 화려한 멋을 더했다. 블랙 원피스에 포인트로 함께 매치하면 우아한 멋을 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캐스 키드슨은 플라워 문양에 기미된 파자마 가볍게 걸치는 것만으로도 화사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숄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뜨개나 바느질이 취미인 엄마를 위해 바느질 용품을 한 곳에 정리정돈 할 수 있는 소잉 바스켓같은 아이템도 특별한 선물로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아빠를 위한 선물로는 더운 날씨에 건강과 편안함을 챙길 수 있는 파케 셔츠와 컴포트 슈즈가 제격이다.

금강제화의 남성용 컴포트 슈즈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 신발은 장시간 착화 시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고 발에 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발 모양에 가까운 구두 모양은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한다.

/정혜인기자

쿨한 배송 롯데마트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마트몰이 이 여름 제철 과일을 시원하게 배송해주는 쿨(Cool) 배송 서비스를 지난해보다 2주 가량 앞당긴 8일부터 한다. 이 서비스는 수박을 온라인 전용 냉장 창고에 보관하다 주문이 접수되면 냉장 배송 차량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롯데마트 제공

강강술래 "감사의 달 건강선물 파격 할인"

한우곰탕·보리굴비 등 최대 40%↓ 골프웨어 캘러웨이 상품권 증정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물세트를 파격할인 판매한다.

온라인 쇼핑몰(sulla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이달 15일까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600g×5팩·15인분)는 3만3400원, 소용량 세트(350g×5팩·10인분)는 1만9500원, 옛날간식갈비맛 쇠고기육포(6봉)는 2만16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또 이달 30일까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통돈심돈가스와 모짜렐라치즈돈가스, 찹찹한우떡갈비, 흑임자현돈너비아니가 각각 1세트씩 들어간 어린이선물세트도 40% 할인된 3만9000원에 판매한다. 구매 시 버블건 장난감을 선물로 증정한다.

같은 기간 영광법성포에서 자연 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하여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 10마리 세트는 10만4000원, 20마리 세트는 7만2000원에 2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어버이날(8일) 하루 동안 전 매장에서는 60세 이상 방문고객에게 고급향기부채와 냉면쿠폰 2매를 소진시까지 증정한다. 늘봄농원점은 특별 라이브 공연도 한다(이외도점은 부채만 증정).

5월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세계 최정상 골프웨어 캘러웨이 의류상품권(10만원)을 증정한다.

자연 친화적인 고기능 소재를 사용하고 정제된 화려함이 느껴지는 고급적 디자인으로 골프투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돋보인다.

/정영철기자

산들건강, 가정의 달 이벤트

산들건강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날 말까지 '산들통배고' 모든 제품을 40%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 산들건강은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심혈관 질환과 눈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아로니아즙' 5포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들건강 홈페이지(www.sandle.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들통배고는 기관지와 목 건강에 좋은 배·도라지 등을 4일 이상 달여 만든 건강식품이다. 문의 02)778-4568

/정지원기자

종이팬더 1600마리 상륙!

metro HongKong

다음달 전시 프로젝트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을 방문했던 종이팬더 1600마리가 다음달 홍콩을 찾는다.

이 팬더들은 프랑스 유명 예술가와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공동 기획한 전시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졌다. 모형은 중국의 자이언트 팬더 1600마리를 보호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팬더들은 2008년 파리 시청 앞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후 프랑스 낭트,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 스위스 제네바, 독일 베를린과 드레스덴 등 약 20개 도시의 명소 100곳 정도를 여행했다. 현재는 아시아 최초로 타이완에서 전시되고 있다.

'홍콩 팬더 월드 투어'는 홍콩국제공항, 천단대불, 청마대교, 사틴 경마장, 홍콩골리시움, 시계탑, 빅토리아 파크, 피크 등 홍콩 각지에서 진행된다. 팬더들은 다른 국가에서 호응했던 것처럼 게릴라 형식으로 등장, 행인들에게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활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정리=조선미 기자

무인기 열풍 '비행학원' 등장

metro France

조종법은 5일이면 끝

Une école de pilotage de drones

프랑스 툴루즈에 무인기 조종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생겨 주목 받고 있다.

에어버스 엔지니어 출신인 학교 대표 아르노 르 마우는 "우리 학교는 무인기부터 장난감 경비행기까지 다양한 조종법을 가르친다. 물론 모든 교육은 지역비행청(DGAC)이 규정한 법규에 근거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린 법에 기초해 무인기 조종법을 가르치며 무인기 관리법도 교육한다"고 덧붙였다.

첫번째 교육은 시뮬레이션 강의실에서 시작된다. 큰 화면에 보이는 가상 무인기를 직접 핸들로 조종해 보는 것. 실전 연습을 하기 전엔 격납고에 들어가 최종 연습을 한다. 이후부터 실제 무인기를 가지고 바깥에서 100㎞를 조종하게 된다. 아르노 대표는 "무인기를 조종할 땐 바람의 방향과 착륙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곳의 주된 학생은 항공 촬영이나 항공기 제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약 20여명의 학생이 조종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이중엔 전문 조종사를 꿈꾸는 사람도 있다. 올해 21세인 할리 올람은 파워릿 수업의 일부로 5일간 무인기 조종술을 교육 받았다. 그는 "무인기 조종술을 배우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엘린 디딕 기자·정리=윤주희 인턴기자

공항 불만 1위는 '비싼 음식'

metro Brazil

Comida cara é a campeã de re...

브라질의 공항을 찾는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시설도, 서비스도 아닌 '비싼 음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브라질 민간항공청(SAC)이 올해 1월과 3월 사이 1만 8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항 내 식사 해결 문제에 만족도는 0에서 5점 사이에서 가장 낮은 2.16점을 기록했다. 전체 41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이다. 조사에서는 식비뿐만 아니라 공항 내 판매 제품의 낮은 품질과 서비스, 느린 인터넷, 주차 비용도 차례로 뒤를 이었다. /마르셀루 드 메이다스 기자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 통과

2016년 7월부터 교과서에 명칭 의무··'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도

미국 버지니아주에 이어 뉴욕주 상원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됐다. 특히 뉴욕주 상원은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까지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6일(현지시간) 뉴욕주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 법안을 상정, 찬성 59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고 주요 외신이 전했다.

이 법안은 토니 아벨라 독립민주컨퍼런스(민주당 탈당의원 모임) 의원이 제출했다. 오는 2016년 7월부터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증 교과서에 동해 명칭을 의무적으로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에는 '동해 단독 표기'와 '위안부 관련 교육' 내용이 함께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해 단독 표기가 시기상조라는 한인 사회의 설득으로 법안은 수정됐다. 또 동해 병기 노력에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도 결국 빠졌다.

범동포추진위원회는 뉴욕주 상원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원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통과된 법안을 서둘러 하원에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된 동해 병기 법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제출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이 만든 법률안으로 상·하원 모두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뉴욕주 상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 경과와 희생자 규모 등을 적은 뒤 한국 국민과 정부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이다.

/조선미 기자 seonmi@metroseoul.co.kr

"우리 딸들 석방하라!" 6일(현지시간)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시민 단체들이 보코하람에 납치된 여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날씬해진 메르켈 총리 다이어트로 10㎏ 감량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최근 모습(왼쪽)과 지난해 체중을 감량하기 전 /더월드포스트

앙겔라 메르켈(59) 독일 총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6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빌트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채식 위주의 식사로 석 달 만에 체중을 10㎏이나 감량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12월 스위스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골반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식단을 바꿨다. 햄에 치즈와 날고기를 얹어 먹는 독일식 간식을 삼가고 당근, 부추, 파프리카 등의 생채소를 섭취했다고 그의 측근들은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주 미국을 방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오찬을 했을 때에도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미 기자

나이지리아 소녀 8명 추가 피랍

통신 사정으로 뒤늦게 확인 오바마 "구출 총력"

나이지리아 여학생 200여명을 단체로 납치했다고 시인한 가운데 최근 소녀 8명이 더 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 3일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 와라베에서 12~15세 소녀 8명이 추가 피랍됐다.

와라베는 첫 납치가 있었던 치복시와 인접한 곳이다. 괴한들은 두 대의 트럭을 몰고 와 가축과 식량까지 약탈해 갔다. 추가 피랍 사건은 열악한 통신사정 때문에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최고지도자인 아부바카르 셰카우는 동영상을 통해 지난달 14일 나이지리아 동북부 치복시에서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다고 밝히고 이들을 노예로 팔겠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보코하람의 여학생 납치 사건 해결을 돕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납치된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며 "나이지리아 정부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전문가들을 이미 파견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보코하람이 여학생들을 노예로 팔겠다고 협박한 데 대해 반인권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조선미 기자

동양인 최초로 호주 엑스팩터에서 우승을 차지한 가수 임다미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베어홀에서 더뷔앨범 'DAMI IM'의 쇼케이스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대위에서 열창하고 있다

동양인 최초 호주 오디션 우승자

디바 임다미(26)의 목소리가 고국 땅에 울려 퍼졌다.

지난해 호주 오디션 프로그램 '엑스팩터'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쥔 임다미가 어릴 때 떠나왔던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7일 오전 삼성동 베어홀에서 열린 임다미 쇼케이스 현장에는 그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호주에서 온 취재진들도 눈에 띄었다. 호주에서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영혼을 위로하는 목소리

연보라빛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 오른 임다미는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며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를 불렀다.

노래를 마친 뒤 그는 "호주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마음이 아팠다. 한국에 와선 분향소에 다녀왔다"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노래는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불렀다"고 말했다.

능숙한 한국어로 인사를 마친 임다미는 곧이어 자신의 히트곡 '얼라이브'를 열창했다. 능숙한 무대 매너로 취재진의 환호를 이끌어낸 그는 다시 한 번 피아노 앞에 앉아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임다미는 "한국 가요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라며 이적의 '다행이다'를 그만의 색깔로 해석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K-팝을 즐겨 듣고 자랐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임다미의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호주 방송팀과 '엑스팩터' 멘토였던 세계적인 스타 카일리 미노그의 동생 대니 미노그도 함께 했다.

●편견의 벽을 넘어서다

임다미는 '엑스팩터'의 첫 예선 무대에서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를 선택했다. 검은 머리의 동양 여자가 부르는 '히어로'를 기대하는 심사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히어로'는 오디션 참가자들이 가창력을 뽐내기 위해 흔히 부르는 곡이지만 정작 제대로 소화하는 사람은 드문 노래이기 때문이다.

차트 석권한 '얼라이브' 이어 신곡 '슈퍼 러브' 전세계 공개 이민 사회의 희망으로 떠올라

하지만 임다미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풀한 음색은 관중은 물론 심사위원의 귀까지 사로잡았다. 가뿐하게 예선을 통과한 그는 몇 차례의 탈락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엔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임다미는 결지히 가창력으로만 승부하는 디바의 모습을 추구했다. 하지만 꼭 발라드만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록밴드 주 파이터스의 '베스트 오브 유', 유투의 '원', 프린스의 '퍼플 레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다.

임다미가 '엑스팩터' 결승전에서 선보였던 신곡 '얼라이브'는 호주 싱글차트 1위의 자리에 올랐다. 또 그가 오디션에서 불렀던 '히어로', 콜 비켓 제니퍼 허드슨의 '엔드 이얼 빌 유 아일 낫 고잉' 등이 차트 순위권에 진입하며 호주는 말 그대로 다미 신드롬에 휩싸였다. 우승과 동시에 호주의 스타로 급부상한 임다미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다.

●양국 아우르는 스타 발돋움

이날 임다미는 "고국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오는 16일 전 세계에 발매 예정인 신곡 '슈퍼 러브'를 미리 공개했다. '슈퍼 러브'는 제목 그대로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빠른 템포의 곡으로 임다미가 걸어온 길과 많이 닮아있다.

그는 "호주엔 많은 이민자가 있다. 이들은 약간 억압되고 주눅 들어 있다. 나도 그 중 한 명이었다"며 "'엑스팩터' 우승이 나 같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들었다. 아시아의 파워를 보여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나이로 올해 27세인 임다미는 아홉 살 되던 해 어머니, 동생과 함께 호주로 떠났다. 당시 아버지만 한국에 남아 기러기 가족으로 살면서 임다미는 이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래를 선택했다.

성악을 전공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노래를 접하고 자란 그는 호주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약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피아노와 바이올린도 배웠다. 하지만 노래만큼은 클래식이 아닌 재즈를 택했고 교회는 물론 교내 보컬 그룹에서 활동하며 차분히 실력을 쌓아온 덕분에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다.

이제 임다미의 목소리는 학교와 교회를 그리고 호주와 한국을 넘어서 세계로 향해 가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uage@metroseoul.co.kr 디자인/현승미

가요계에 톱가수 컴백 바람

백지영·god·휘성·포맨 등 베테랑 새 앨범

백지영

휘성

세월호 침몰 사고로 중단됐던 가수들의 활동 재개가 본격화하고 있다.

8일 신곡발표로 완전체로 돌아오는 god를 비롯해 12일에는 휘성이 2년 7개월만에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 곁에 돌아온다. 시크릿 멤버 전효성(큰 사진)도 12일 솔로로 데뷔한다. 이어 13일에는 포맨, 19일에는 백지영과 클라이언트스카이가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9년만에 활동을 재개하는 god는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싱글을 발표하고 7월에는 정규앨범을 내놓는 나, 또 7월 12~13일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도 진행한다.

데뷔 12년차 휘성은 미니앨범 '더 베스트 맨'으로 돌아온다. 타이틀곡 '나이트 앤 데이'를 포함해 '베스트 맨', '노래가 좋다', '네 옆에 누워', '너라는 명작', '모르고 싶다', '돈 벌어야 돼' 등 총 7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한층 성숙해진 감성을 담았다.

시크릿의 리더 전효성은 12일 솔로앨범 '탑 시크릿'을 공개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첫 싱글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에 도전, 전효성의 매력을 100% 발산했다. 탄탄한 가창력, 섬세한 감성, 매력적인 몸매와 퍼포먼스 등 성숙미와 관능미를 선보인다.

또 명품보컬 그룹 포맨도 13일 정규 앨범을 선보인다. 포맨은 타이틀곡 '지우고 싶다'를 비롯해 '예쁘니까 잘 될 거야', 'OK' 등 총 10곡이 실린 정규 5집 '1998'을 발표한다. 보편의 정규 5집 '1998'은 데뷔해인 1998년을 의미한다. 앨범 곳곳에 90년대 당시의 감성을 담았다.

올해 15주년을 맞는 클라이언트스카이는 19일 9집 정규앨범 '컨티뉴엄'을 발매한다. 백지영은 7일 신곡 '봄꽃'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어 오는 19일 신곡 '여전히 뜨겁게'로 음악방송 컴백 무대에 설 계획이다. 1년 4개월만이다.

/장의호기자

yswill@metroseoul.co.kr

악동뮤지션 돌풍 빌보드도 주목

기브 러브 뮤비 상세 소개

미국 빌보드가 대세 앨범을 발표한 악동뮤지션(사진)을 조명했다.

빌보드는 최근 악동뮤지션의 세 번째 타이틀곡 '기브 러브'와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빌보드는 뮤직비디오에 대해 "잠을 한 '얼음들' 뮤비에 이어 악동뮤지션이 공개하는 기발한 세 번째 뮤직비디오"임을 밝히며 "'200%'와는 또 다른 경쾌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악동뮤지션의 이번 뮤직비디오는 '200%'의 러브 스토리 라인을 이어가는 내용"이라고 소개한 뒤 악동뮤지션의 이수현이 짝사랑한 남자의 여자친구는 사실 여자친구가 아닌 여동생이라는 반전 결말까지 상세하게 소개했다.

한편 악동뮤지션은 지난달 7일 음원 발표 이후 한 달간 월간, 주간 음원차트 정상을 점령하며 롱런하고 있다. '200%'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집계한 주간 음원 차트 중 올레뮤직, 지니, 몽키3에서 정상을 지켰다. 올레뮤직과 지니는 4주 연속 1위, 몽키3는 3주 연속 1위를 기록중이다.

이 곡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애도로 결방 중인 음악프로그램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엠넷 '엠카운트다운' 종합 순위에서 3주 연속 1위, SBS '인기가요'에서 2주 연속 1위를 지켰다.

/유순호기자

대세돌 엑소 초강력 히트 예고

'중독' 음원시장 올킬·· 미니 앨범 최다 선판매 66만장

그룹 엑소의 새 미니앨범 '중독'이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7일 공개된 엑소의 '중독'은 발매 직후부터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을 비롯해 엠넷닷컴, 벅스뮤직, 올레 소리바다, 지니, 네이버뮤직 등 실시간이 반영된 주요 음원사이트 1위를 싹쓸이했다.

발매 직후 엑소-K의 5곡, 엑소-M의 5곡이 차례로 1~10위까지를 휩쓰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멜론의 경우 음원공개 직후 사용자가 몰려서인지 잠시동안 접속장애가 있었다.

또 이날 함께 공개된 '중독' 뮤직비디오 역시 공개 7시간만에 80만 조회수(공식 유튜브 집계)를 훌쩍 넘겼다.

앨범 선주문량도 총 66만8710장(한국어판 37만2160장, 중국어판 28만6550장)을 기록했다. 역대 미니앨범 사상 최다 선주문량이다.

타이틀곡 '중독'은 힙합과 R&B를 기반으로 한 어반 느낌의 댄스 곡이다. 치명적이고 강렬한 사랑에 중독된 남자의 이야기를 사실적이고 감각적으로 묘사한 가사가 인상적이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컴백쇼에서 최초 공개돼 뜨거운 호응을 얻어 이같은 인기를 예측케 했다.

한편 엑소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애도하며 당초 예정된 음반, 음원 발매를 비롯한 국내 컴백 일정을 미뤘었다.

/장의호기자

아이유 '5월 가요여왕' 첫발

콘서트 '딱 한발짝…' 예매 시작·앨범 출시

아이유가 5월 가요계 여왕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아이유는 7일 오후 8시 '아이유 소극장 콘서트-딱 한발짝, 그 만큼만 더'의 티켓 예매를 시작했다. 22~25일, 27일~6월 1일 서강대 메리홀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소속사 로엔트리측은 "때론 동화 속 소녀의 신비로운 모습으로, 때론 스윙 비트를 달리는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으로 다양한 음악 색깔과 대규모 공연을 보여줬던 아이유는 이번 공연에서 소박하고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음악 공간에서 특별한 울림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히트곡은 물론 이달 중순 발표될 리메이크 앨범 수록곡들을 최초로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아이유는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 전액을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이유는 톱 가수들의 컴백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앨범과 공연으로 진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회춘누아르
꽃할배
수사대
tvN
평균나이 70세
29
짜장맨 할배들이 떴다
매주 금밤 9시 50분 · 5월 9일 tvN 첫 방송
제작 SSD 이순재, 변희봉, 장광, 김희철, 이초희, 김응수, 박은지

할리우드 여전사, 첫 악녀 도전

졸리, '말레피센트'서 마녀 변신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4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면서 데뷔 이래 처음으로 악녀 캐릭터에 도전해 화제다.

7일 수입·배급사 소니 픽쳐스 릴리징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스 코리아에 따르면 졸리는 29일 개봉될 영화 '말레피센트'에서 사악한 마녀 말레피센트를 맡았다.

'말레피센트'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매력의 마녀 말레피센트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공주 오로라에게 내린 치명적인 마법의 주문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블록버스터다.

'툼 레이더' 시리즈의 라라 크로프트, '미스터&미세스 스미스'의 킬러 부인 제인 스미스, '원티드'의 인간병기 폭스, '솔트'의 CIA요원 에블린 솔트 등 그동안 폭위풍한 액션 연기로 할리우드 대표 여전사로 존재감을 과시한 졸리의 변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캐릭터를 위해 의상과 메이크업 아이디어를 직접 제공하는 열정을 드러낸 졸리는 "어릴 때부터 말레피센트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다. 대본을 읽자마자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애착을 보였다.

영화를 연출한 로버트 스트롬버그 감독은 "졸리와 말레피센트의 이미지는 보고 있으면 하늘이 맺어준 결합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순호기자

'말레피센트'의 안젤리나 졸리

2인자 벗은 여배우 둘

'빅맨' 이다희·'기분 좋은 날' 박세영 주연 맹활약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 박세영

배우 이다희와 박세영이 드라마 여자 주인공 세대교체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데뷔 후 2인자로 시청자를 만나 왔던 두 사람은 각각 KBS 2 월화극 '빅맨'과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을 통해 작품의 중심에서 활약 중이다.

'빅맨'은 이다희의 첫 미니시리즈 주연작이다. 2002년 슈퍼모델로 데뷔한 그는 다수의 작품에서 조연을 맡았다. SBS '내 인생의 단비'(2012)에선 한단비 역으로 아침드라마 주연 자리를 차지했다. 이후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2013) 서도연 검사, KBS2 '비밀'(2013) 신세연을 통해 대표 서브 여주인공으로 이름을 알렸다.

마침내 '빅맨'에서 현성유통 경영지원 팀 팀장 소미라로 재벌 2세 강동석(최다니엘)과 '빅맨'이 될 김지혁(강지환)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 연기를 보일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보다는 강지환과 최다니엘을 받쳐주면서 작품에 묻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욕심 내는 순간 혼자 동떨어지게 된다. 작품이 점차 전개되면서 소미라를 조금씩 꺼내 보일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세영은 '기분 좋은 날'에서 상큼 발랄한 학교 영양사 정다정 역을 맡았다. SBS 주말극 '내일이 오면'(2011)에서 데뷔했고 KBS 2 '적도의 남자'(2012)에선 아역, SBS '신의'(2012) 노국 공주, KBS2 '학교2013' 부반장 송하경으로 분해 2인자로 출연했다.

지난해 KBS1 일일극 '지성이면 감천'의 여주인공을 맡았다. '기분 좋은 날'은 배우로서의 도약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그룹 2PM의 우영과 가상 부부로 출연하며 젊은 시청자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였다. 현재 방영되고 있는 '기분 좋은 날'을 쓴 문희정 작가의 '그대 웃어요'를 통해 스타로 성장한 배우 이민정을 보면 박세영의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제작사 측은 "뛰어난 표현력으로 정다정에 딱 맞는 싱그러움을 보여줬다. 그 동안 보지 못했던 감춰진 매력을 꺼내 보일 박세영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효진기자 jeonhj39@metroseoul.co.kr

프러포즈 하려면 '스캔들'

5월 특별 이벤트 연극… 연인 문의 쇄도

대학로 화제의 연극 '스캔들'이 5월 특별 이벤트를 마련해 흥행에 속도를 낸다.

'스캔들'은 본격적인 데이트 시즌을 맞아 '5월 매(每)일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평일 전석 1만7000원, 주말 전석 1만9000원으로 티켓 가격을 할인하는 이벤트를 개최한다.

제작사 악어컴퍼니는 "5월 특별한 날을 맞아 고백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 등을 위한 프러포즈를 준비 중인 커플들의 이벤트 예약 문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이벤트를 진행한 관객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스캔들'은 2012년 초연 이후 인터파크 관객 평점 9.2점, 평균 객석점유율 95%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인기를 얻어 왔다.

악어컴퍼니는 "봄을 맞아 대학로로 나들이 다온 20~30대 젊은 학생과 커플, 가족 단위의 관객 등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며 "주말엔 매진으로 현장 구매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관객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스캔들'은 대학로 A아트홀에서 오픈런으로 공연 중이다.

/유순호기자 suno@

충무로 기대주들, '스물'서 뭉쳤다

김우빈·이준호·강하늘, 동갑내기 친구 역 캐스팅

이준호

김우빈

강하늘

충무로의 기대주 김우빈, 이준호(2PM), 강하늘이 영화 '스물'에서 뭉쳤다.

배급사 NEW는 7일 "앞서 김우빈이 출연을 결정한 데 이어 이준호(2PM), 강하늘까지 합류해 세 명의 주인공 캐스팅을 마쳤다"고 밝혔다.

'스물'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리는 나이 스물을 맞이한 혈기 왕성한 세 친구의 유치한 사랑과 우정을 그린 이야기다. 세 유형의 남자 캐릭터를 통해 20대를 맞이하며 기대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현실적인 유쾌함으로 담아낸다.

이성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혈기에 자신의 삶을 '올인'한 백수 치호 역에 김우빈이 가장 먼저 캐스팅됐다. 김우빈은 드라마 '상속자들'과 영화 '친구2'를 통해 단번에 스타덤에 올랐다.

만화가의 꿈과 배고픈 현실 사이에서 번뇌하며 각종 아르바이트를 섭렵하는 재수생 동우 역에는 그룹 2PM의 멤버인 이준호가 확정됐다. 이준호는 영화 '감시자들'을 통해 스크린 데뷔에 성공하며 최근 이병헌·전도연 주연의 '협녀, 칼의 기억' 촬영을 마친 신인 배우다.

남들이 하는 건 다 누리고 사는 21세기형 '훈남'을 지향하는 새내기 대학생 경재 역은 SBS 드라마 '상속자들', '엔젤 아이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며 주목받은 강하늘이 선택됐다.

올 여름 크랭크인할 '스물'은 '과속스캔들', '써니'를 각색하고 '힘내세요, 병헌씨'를 연출한 이병헌 감독의 상업영화 데뷔작이다. 이 감독은 "실제로 동갑내기인 세 배우가 보여줄 '케미'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준형기자 hjk1427@

나들이족 위한 경기도 숨은 명소는?

대중교통 이동 가능… 공공예술·아쿠아리움 등 다양

단순한 쇼핑이나 맛집이 아닌 예술·문화·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명소들이 나들이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경기도 지역의 숨은 명소의 인기가 높다.

◆안양에서 만나는 공공예술

먼저 안양에서는 공공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를 즐길 수 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개최하는 국제 공공예술행사인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nyang Public Art Project, 이하 APAP)'가 바로 그것이다.

행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안양파빌리온과 김중업박물관에서 펼쳐지며 이 자리에서는 '퍼블릭 스토리'라는 주제로 제작된 24개의 신작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전문 도슨트가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APAP 투어'도 운영되며 공공예술 전문도서관과 공공예술 디지털 아카이브도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안양문화예술재단은 APAP 개막을 앞두고 인터페이스 '나의 나만의 공공예술'이라는 제목의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해 공공예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류 드라마 중심 '쁘띠프랑스'

가평군 청평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있는 '쁘띠프랑스'는 프랑스 문화를 테마로 한 마을이다. 프랑스의 옛 주택이 재현돼 있고 드라마 촬영 장소로 널리 알려져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더욱이 쁘띠프랑스 안에서는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작은 공연장에서는 마리오네트·마임·인형극 등 다채로운 공연을 한다. 체험존에서는 쁘띠프랑스의 마스코트인 어린왕자를 석고 아트나 석재화 등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수원화성도 빼놓을 수 없는 경기도의 명소다. 조선시대 건축의 백미로 꼽히는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또 화성열차를 타고 수원화성 연무대에서 장안문·팔달산까지를 관람할 수 있다. 군사들이 무예를 연마하고 훈련했던 수원화성 연무대에서는 국궁 활쏘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 최근 시작된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통해 현재 관람하고 있는 수원화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음성 안내 및 동영상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한국어는 물론 영어·일어·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돼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국내 최초 컨버전스 아쿠아리움

지난달 고양시에 문을 연 한화호텔&리조트의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수족관과 동물원이 공존하는 국내 최초 컨버전스 아쿠아리움이다.

아쿠아플라넷 일산

▶ 한화호텔&리조트 제공

바다코끼리 등의 수상 생물부터 재규어, 한라꼬리원숭이 등의 육상 생물까지 다양한 동물을 관람할 수 있다. 크게 해양 생물 전시공간인 '더 아쿠아'와 육상 생물 전시관인 '더 정글'로 구성된다.

특히 더 아쿠아는 빛을 투과한 신비로운 풍경으로 꾸며졌다. 관객과 아쿠아리스트가 상호 커뮤니케이션으로 교감할 수 있는 양방향 도슨트 프로그램과 싱크로 퍼포먼스, 생태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아울러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킨텍스와 주엽역, 일산 꽃 박람회장과 가까워 나들이 장소로 제격인 숨은 명소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도심 호텔서 즐기는 바비큐 파티

프리 비어 페스티벌부터 셰프 패키지까지

도심 속 명품호텔들이 초여름의 낭만을 미리 만끽할 수 있는 '테라스 BBQ 프로그램'을 오픈한다. 특별한 준비 없이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느끼며 숯불 바비큐의 참맛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즐겨보자.

◆다채로운 이벤트 함께

먼저 더케이호텔서울은 뷔페 레스토랑 '더 파크'에서 '테라스 숯불 바비큐 디너'(사진)를 운영한다. 본관 2층에 위치한 테라스에서 야외 그릴을 활용한 등심·왕새우·닭 꼬치·옥수수 등 총 8종의 바비큐 메뉴가 제공된다. 생맥주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비어 프리 이벤트'도 5월 말까지 함께 준비된다.

또 밀레니엄 서울 힐튼은 정통 영국풍의 바 '오크 룸' 야외 테라스에서 'BBQ Happy Hour'를 선보인다. 저녁 6시부터 8시30분까지 바비큐 요리와 생맥주·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다채로운 샐러드와 볶음밥·오븐 감자요리 등의 식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서울플라자호텔의 레스토랑 '스톤플레이트'는 8월 말까지 '팰리스 테라스 드링크& 바비큐 파티'를 연다. 즉석에서 구운 LA갈비·양고기·티본 스테이크, 연어와 모둠 소시지 등 다양한 고기와 야채 구이를 함께 맛볼 수 있다. 성인 2인과 동반하는 12세 이하의 동반 어린이는 무료 혜택을 받는다.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은 스탠다드 객실 1박과 바비큐 뷔페·무제한 생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프링 바비큐 패키지'를 준비했다. 특히 루프탑바(Roof-top Bar)로 잘 알려진 스카이라운지 클라우드에서 즐기는 바비큐 뷔페는 서울 강남의 야경과 시원한 봄 바람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황재용기자

르네상스 서울 호텔 '사랑&감사' 이벤트

가정의 달 할인 행사 등 풍성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메이 러브 블러썸(May love blossom)'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먼저 호텔은 어버이날 당일 호텔 내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3대 이상의 가족에게 '부모님께 잘하자'라는 이벤트를 통해 가족 중 2명에게 무료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이벤트가 진행돼 스승과 함께 방문하는 고객에게 30% 할인 혜택을 준다. 19일 성년의 날에는 21살이 된 성인에게 다양한 선물이 증정된다.

이와 함께 9일까지는 도심 속에서 완전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서프라이즈 겟어웨이' 패키지도 이용할 수 있다. 문의:02)2222-8900

/황재용기자

문화재와 자연을 동시에 즐긴다

고성 왕곡마을로 떠나는 '생생(生生) 시간여행'

천혜의 자연과 다양한 문화재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강원 고성군은 '문화예술감성단체 여민'과 함께 10일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고성군 죽왕면 왕곡마을(중요 민속자료 235호)에서 '고성 왕곡마을로 떠나는 생생 시간여행'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왕곡마을은 금강산과 설악산을 잇는 산세와 동해바다를 품고 있는 곳으로 전학정·청간정·어명기 가옥 등 다양한 문화재가 있어 가족여행으로 제격인 고성군의 명소다.

또 조선시대의 대표 문인인 송강 정철이 유람을 다니며 지은 '관동별곡'의 배경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동해안의 대표 올레길인 '관동별곡 8백리길'과 7번 국도의 송지호 주변을 도는 '송지호 둘레길'도 있어 여유를 즐기는 걷기여행도 가능하다.

송지호 해수욕장과 송지호 오토캠핑장도 여행객을 맞을 준비를 끝냈으며 캠핑장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왕곡마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인터파크투어,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인터파크투어(대표 박진영)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할 '인 투-영(Interpark Tour Young)'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인터파크투어의 공식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국내외 여행 트렌드 분석, 방학 때 가고 싶은 여행 상품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 인터파크투어는 매월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개인 미션과 팀 미션을 평가해 개인 및 팀 단위의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구자철

기성용

박주영

이청용

브라질행 태극전사 오늘 발표

A매치 성적 반영 "깜짝 발탁 없을듯" 지동원·이명주·남태희 승선 불투명

2014 브라질월드컵에 출전할 축구국가대표팀 명단이 8일 공개된다.

지난 10개월에 걸쳐 '태극전사 구상'을 해 온 홍명보(44) 축구 대표팀 감독은 8일 오전 11시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23명의 대표선수 명단을 발표한다. 당초 축구협회는 9일 최종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홍 감독은 하루 앞당긴 8일로 결정했다.

그동안 홍명보 감독에 깜짝 발탁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에서 A매치 평가전을 통해 기량을 인정받은 선수들이 이변 없이 모두 승선할 전망이다.

포지션별로 분류하면 일단 4-2-3-1을 주 전술로 하는 홍명보호에서 원톱에는 박주영(왓포드)과 김신욱(울산)이 확정적이다. 2선 공격수에는 좌우날개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청용(볼턴), 공격형 미드필더 구자철(마인츠)이 중용될 전망이다.

이근호(상주)와 김보경(카디프시티)은 좌전방과 2선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커로 기용될 것이 유력하다.

중앙 미드필더는 기성용(선덜랜드)과 한국영(가시와)이 이미 두 자리를 예약했다. 백업 자리를 놓고 이명주(포항), 박종우(광저우 부리), 하대성(베이징), 장현수(광저우 부리) 등이 경합 중이다.

포백(4-back)에는 김진수(니가타), 김영권(광저우 헝다),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이용(울산)이 유력하다. 런던올림픽에서 홍명보호의 주전 왼쪽 풀백이던 윤석영(QPR)이 마지막 변수다.

백업 두 자리를 놓고 곽태휘(알힐랄), 황석호(히로시마), 장현수 등이 경합 중인데 곽태휘는 대표팀의 유일한 30대 수비수로서 풍부한 경험이 강점이다. 황석호는 오른쪽 풀백, 장현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한 멀티 능력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3명이 포진하는 골키퍼 자리는 정성룡(수원)과 김승규(울산)의 양강 체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전은 월드컵 개막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제3의 골키퍼로는 이범영(부산)과 김진현(세레소) 중 한 명이 선택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소속팀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공격수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은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명주나 남태희(레퀴야)는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대표팀에서의 입지가 약하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여기에 같은 포지션에 기성용과 한국영, 이청용, 구자철 등이 경쟁자로 나서 홍명보호 승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대표팀은 2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튀니지와 국내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고 30일 미국 마이애미로 최종 전지훈련을 떠난다. 다음달 10일 마이애미에서 가나와 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 평가전에 나선다. 홍명보호는 11일 결전의 땅 브라질에 입성해 베이스캠프인 이구아수에서 원정 8강 단성의 꿈을 준비한다.

/장형월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추신수 3출루는 기본

5경기 연속 기록

'기록제조기'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멀티히트 행진을 5경기로 늘렸다.

추신수는 7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 필드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서 1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장해 3타수 2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세 번의 출루에 성공한 추신수의 타율은 종전 0.360에서 0.370(92타수 34안타)까지 끌어올렸다. 세 차례 베이스를 밟으면서 출루율도 0.491에서 0.500까지 올랐다.

추신수는 이날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다. 최근 5경기 연속 멀티히트와 함께 3출루 이상을 기록했다. 맹타를 이어간 추신수는 타율과 출루율에서 리그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추신수는 3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 이래 이날까지 5경기 연속 3차례 이상 출루를 기록했다.

한편 텍사스는 이날 21피안타를 내주며 1-12로 완패했다. /장형월기자

프로야구 전적 7일

■잠실

				R	H
한화	220	010	010	11	8
LG	200	400	000	10	7

△승리투수=박정진 △패전투수=정찬헌 △홈런=[illegible]

■목동

				R	H
NC	835	262	XXX	24	
넥센	200	12X	XXX	5	

[illegible]

■문학

				R
삼성	000	000	005	5
SK	002	101	000	4

[illegible]

■사직

				R
두산	300	200	100	6
롯데	210	400	03X	10

△승리투수=옥스프링 △패전투수=노경은 [illegible]

다저스 에이스 커쇼 화려한 귀환

부상 털고 6주 만에 등판 7이닝 무실점투 2승 수확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클레이턴 커쇼(26·사진)가 컴백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6주간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커쇼는 7일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9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2승째를 거뒀다.

지난 시즌 두 번째 사이영상을 받은 현역 최고 투수의 복귀에 힘입어 다저스는 8-3으로 승리하며 2연패를 탈출했다.

커쇼는 어깨와 등을 연결하는 대원근 염좌를 앓았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이날 경기에서 최고시속 151km의 직구를 꽂았다. 130km 후반대의 슬라이더와 120km 내외의 커브는 자유자재로 섞어 던지며 9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커쇼는 0-0으로 맞선 6회 선두타자로 1루에 진루하며 결승 득점도 올렸다. 최근 침체됐던 다저스 타선은 오랜만에 봉공을 퍼부으며 커쇼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6회 커쇼의 출루 이후 연속 안타로 3득점했고, 7회에는 디 고든의 3루타에 힘입어 1점을 보탰다. 8회에는 핸리 라미레스의 솔로홈런과 드루 부테라의 3점포가 연달아 터지며 4점을 추가했다.

/유순호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만두는 효도만두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삼국지를 읽어 보면 만두는 제갈공명이 만들었다고 나온다. 하늘의 노여움을 달래야 하는데 차마 산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대신 사람머리 모양으로 만두를 빚어 하늘을 속이고 제사를 지낸 것이 효시라는 것이다. 소설 속 이야기지만 실제로 만두라는 이름이 처음 문헌에 나오는 시기는 제갈공명이 살았던 삼국시대다. 그렇다고 진짜 제갈공명이 만두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만두는 뿌리가 중국인지 서역인지도 확실치 않다.

중국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만두를 먹게 됐을까?

흔히 중국에서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문헌에 처음 보이는 만두는 거란을 통해서 들어왔다. 중국이 아닌 서역에서 직접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만두 이야기는 고려사(高麗史)에 보인다. 12세기 말 고려 명종 때 거란에서 귀화한 고려인 위초(尉貂)가 만두를 만들었다고 나온다.

위초의 부친이 몹쓸 병에 걸렸다. 의원이 아들의 고기를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위초가 스스로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만두를 빚어 부친께 공양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병이 나았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위초의 효심이 고금에 없을 정도로 기특하다며 상을 내렸다.

고려사 중에서도 효자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효우열전(孝友列傳)에 나오는 내용이다. 옛날 효자들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아픈 부모를 치료했다. 지극한 효심의 상징으로 할고료친(割股療親)이라고 했다. 제갈공명의 만두가 산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면 고려인 위초의 만두는 부모님의 생명을 구했다.

만두 이야기는 모두 속이 꽉 찬 만두처럼 인간미가 넘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만두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만큼 귀하고 좋은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에는 만두는 제사를 지낼 때나 특별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정도였다.

오늘 어버이 날이다. 카네이션과 함께 옛날의 만두에 버금가는 맛난 음식이라도 대접해 드려야겠다.

/음식문화평론가

날씨

5/8 木 일출시각 05:30 일몰시각 19: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제주, 강릉, 독도 13/1-, 대구 14/24, 포항, 울산 14/2-, 부산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에 좋은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식 체질관가능지수
눈물증가능지수
피부결환가능지수

자료제공: 한국의학교 서울캠퍼스 www.gnk.co.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6	1			
	6	1			9		2	4
							1	
		4	7			3		2
	2						8	
8		3			4	6		
	5							
3	1		9			2	6	
			1	5				8

9		5				8		
	1		9		7	3		
					8			
4			7		2		1	8
1				6				5
2	5		8		3			4
			6					
		8	3		5		9	
		4				5		6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퍼즐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카운)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u8.com

2년사귄 연인 결혼운 어떤지 궁합은 맞지만 시기가 일러요

예쁜하 남자 87년 7월 11일 음력 아침 8시 30분
여자 91년 10월 15일 음력 밤 9시 30분

Q 남자 87년 7월생과 여자 91년 10월생의 결혼운을 알고 싶습니다. 2년 정도 사귀었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제일 좋아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하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결혼운을 알고 싶습니다.

A 천생연분으로 백년해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결혼생활이 원만하고 검소고락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궁합이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배우자를 만나서 사는 것도 자신의 사주팔자안에 있는 것이므로 때로는 고난의 시련이 와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인내해 나가는데 더 큰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분의 궁합은 귀하게 내조로 남자가 잘나가게 되어 더불어 귀부인 대접을 받는 궁합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만나서 결혼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 젊은 시기에 결혼에 집착을 쏟기 보다는 만나면서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떨지요?

공직 준비, 남친관계 이어질지 시험은 어렵고 친구로 만나요

lumcabin 여자 79년 12월 27일 양력 0시 5분

Q 늦은 나이에 공무원을 준비 중입니다. 공무원이 어렵다면 정규직으로 이직을 할 수 있을는지요? 또한 보험관련업무(손해사정사)로 이직할 마음이 있는데 그 곳으로 이직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985년 2월 24일 호랑이띠 남자(태어난 시는 모름)와의 궁합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 귀하의 마르지 않는 습토는 금기를 품어 필요 정진하는 근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생일지에 백호 그릇(보스기질)으로 성정이 강하고 과격한 드러냄이 있으며 남들에 부러워 하는 의외의 기이한 발복이 있습니다. 이직운이 있으므로 여러 생각이 교차할 것이니 생각과 다르게 아픔이 뒤따 있어서 공무원시험은 다소 어렵다고 봅니다. 상대남자와의 궁합은 상부상조함이 어렵고 남자에게 내조를 해주지만 남자는 그것이 당연하여 잘 대해주지를 못합니다. 남자는 사상이 건전하고 의관이 단정하여 두뇌도 총명하지만 내심 비위에 맞고 속과 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자를 탓할 이유는 없는 것이 친구로는 좋은 궁합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에 정확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게재하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5월 8일 (음 4월 10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 **48년생** 걱정만 생기니 욕심은 금물~ **60년생** 귀인 대접할 일이 생긴다. **72년생** 마음에 있어도 어긋이 안 되면 포기하라. **84년생** 원하던 소식을 듣는다.

소 — **49년생** 아들의 병은 약도 있다. **61년생** 막힌 일은 풀리니 걱정 말라. **73년생** 일은 순조롭게 생기니 걱정거리도 생긴다. **85년생** 오늘보다는 내일을 생각할 것.

호랑이 — **50년생** 주거문제로 고민할 듯. **62년생** 좋은 일을 하다보면 어려움도 있다. **74년생** 부모와 배우자 간 조정을 잘 하라. **86년생** 최선을 다하면 칭찬 받을 일 생긴다.

토끼 — **51년생** 삶에 활력소 될 일 생긴다. **63년생** 공직자는 감석 주의 빠지지 않도록~ **75년생** 계획한 일은 동시추진이 어렵다. **87년생** 결정 표현은 명확히 할 것.

용 — **52년생** 어렷사위 허물은 용서할 것. **64년생** 귀인을 만나 제2인생 청사진 그린다. **76년생** 잘 알이 있어도 자제하라. **88년생** 눈물 젖은 돈이 희망의 종잣돈 된다.

뱀 — **53년생** 마음 비우면 매사 순조롭다. **65년생**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무시할 것. **77년생** 수상한 거래는 뒤탈이 생긴다. **89년생**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라.

말 — **42년생** 장거리 이동은 피하라. **54년생** 사소한 일에 화내면 체면만 깎인다. **66년생** 자녀를 위한 희생은 행복한 법~ **78년생** 요즈음 같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양 — **43년생** 괜한 의심은 화를 부른다. **55년생** 낯선 사람이 접근하니 경계하라. **67년생** 직장인은 헐은 성과에 자신감 되찾는다. **79년생** 세상의 기운에 너무 민감하지 말라.

원숭이 — **44년생** 금품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 **56년생** 사과에 인색하면 더 많이 잃는다. **68년생** 생각은 깊이 하고 언행은 신중할 것. **80년생** 꽃 뿌린 텃밭에 식물이 쑥쑥 자라는 격이다.

닭 — **45년생** 심심할 정도로 안안하다. **57년생** 오늘보단 내일이 좋으니 낙심 말라. **69년생** 부부가 화합하니 노래 소리가 크다. **81년생** 사소한 약속이라도 번복 말라.

개 — **46년생**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라. **58년생** 방심하면 손 안의 고기도 놓친다. **70년생** 관재수 있으니 미래에 연루되지 말라. **82년생**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는다.

돼지 — **47년생** 벅찬 일은 포기하는 게 좋다. **[illegible]년생** 나들이 하고 싶은데 벗이 없구나. **71년생** 투자나 매매 모두 관망이 이롭다. **83년생** 집착할수록 도망가는 게 사랑~